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23년 7월 2일(주일) 제1449호

일어나라! 기도하라! 전하라!

‘714 기도대성회’ 7월 14일 오후 2시 송도 컨벤시아
‘2023 카운트다운’ 7월 15~16일 오후 2시 송도 컨벤시아

제4차 로잔대회를 앞두고 한국 교회의 영적 대각성을 위한 ‘714 기도대성회’와 ‘2023 대학청년부 예배&선교 콘퍼런스 카운트다운(이하 2023 카운트다운)’이 막 오른다. 한국 교회가 한자리에 모여 영적 각성을 꾀하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기로 결단하는 장(場)이다.

‘714 기도대성회’는 7월 14일(금) 오후 2시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다. 714 기도대성회는 세 파트로 진행된다. ‘파트1’에서는 주안장로교회팀 찬양, 이재훈 목사 개회사, 주승중 목사(주안장로교회) 메시지, ‘파트2’에서는 더사랑의교회팀 찬양, 이인호 목사(더사랑의교회) 메시지, 제4차 로잔대회와 중보기도 참여방안 안내 서약식, ‘파트3’에서는 온누리교회팀 찬양, 유기성 목사(WJM이사장), 기도선포 등을 한다.

714 기도대성회에 참가하고 싶은 성도들은 온누리 홈페이지(onnuri.org)나 포스터 쿼알코드로 접속해서 신청하면 된다. 회비는 없다.

‘2023 카운트다운’은 7월 15일(토)과 16일(일) 오후 2시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The Whole Church, Whole Gospel, Whole World’를 주제로 막 오른다. 로잔운동의 핵심가치이

자 모토인 ‘온 교회(The Whole Church)가 온전한 복음(The Whole Gospel)을 온 세계에(The Whole World)!’를 주제로 정했다.

2023 카운트다운에서는 7월 15일(토) 최성은 목사(지구촌교회) ‘The Whole Church’, 문대원 목사(대구동신교회) ‘The Whole Gospel’, 한철호 선교사(미션파트너스 대표) ‘The Whole World’, 16일(주일) 이재훈 목사 ‘Come to worship’, 유기성 목사(WJM이사장) ‘Go to the nations’를 주제로 메시지를 전한다. 스톤게이트(심형진 목사), 홀리웨이브(지구촌교회 젊은이예배), 온누리교회 홀리임팩트팀이 찬양을 인도한다. 선예, 카우치워십, 홍이삭, 범키, 하다쉬뮤직, 크룩스, 박민혜 등이 게스트로 출연한다.

카운트다운 집회에 참가를 희망하는 성도들은 대학청년부 각 공동체 전자주보나 온누리교회 홈페이지(onnuri.org), 포스터 쿼알코드로 신청하면 된다. 회비는 1만 원이다. 회비는 신청 주차 수요일 자정까지 입금해야 한다. 입금할 때 이름과 연락처 끝 네 자리를 함께 적어야 한다(ex. 홍길동8572). 2023 카운트다운에는 제4차 로잔대회와 한국 교회를 위해

2024 서울 제4차 로잔대회와
한국교회 영적대각성을 위한

714 기도대성회

2023.7.14 (금) 오후 2시 - 9시
송도 컨벤시아



이재훈 목사
온누리교회



주승중 목사
주안장로교회



이인호 목사
더사랑의교회



유기성 목사
WJM 이사장

교회여, 그리스도의 통치를 선포하자
Let the Church Declare His Reign

신청 QR 코드 카운트다운 신청

Lausanne MOVEMENT

기도하기 원하는 성도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타 교회 성도들도 참가할 수 있다. 등록 및 회비 납부를 마친 참가자들에게는 6월 15일과 16일 집회 현장에서 ‘2023년 아웃리치 굿즈’를 나눠준다.

제4차 로잔대회는 2024년 9월 열린다. 로잔

운동은 1974년 시작된 복음주의 선교운동이다. 온전한 복음을 온 교회가 연합해서 온 세상에 전하지는 비전을 실현하고 있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온누리 여름 아웃리치 시작!

2023 온누리교회 여름 아웃리치가 시작됐다. 성인공동체, 사역팀, 대학청년부, 차세대 아웃리치팀이 복음 들고 열방으로 떠나고 있다. 여름 아웃리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다. 안전하고 건강한 아웃리치를 위해서 안전지침을 마련하고 반드시 지켜야 한다. 국내 아웃리치팀은 공동체에, 해외 아웃리치팀은 2000선교 본부에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올해 아웃리치는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되었다가 재개되는 만큼 더욱 매뉴얼에 집중해야 한다. 아웃리치 전에 현지 선교사나 지역교회 목회자와 충분한 소통을 나눠야 한다. 공동체나 사역팀이 세운 계획보다 선

교사나 목회자의 지시와 방향성을 잘 따라가야 한다. 또한 각 지역과 나라마다 코로나19 대응법이 다르기 때문에 미리 확인하고 준비해야 한다.

〈온누리신문〉에서는 아웃리치 은혜와 감동을 온 누리와 나눈다. 생생한 아웃리치 사진과 성도들이 받은 은혜가 담긴 원고를 모집한다. 매주 화요일 오후 3시까지 간증(A4용지 1장, 글자 크기 10포인트)과 사진(사역 사진, 간증을 쓴 성도 사진)을 이메일(hha0@onnuri.org)로 보내면 7~8월 온누리신문에 게재한다. 단체 사진보다 역동적인 사진이 좋고, 세로 사진보다 가로 사진이 낫다. 아웃리치 간증과 사진을 보낸 성

도들을 추첨해서 소정의 상품을 보내준다.

미디어본부에서는 ‘온누리교회 아웃리치 동영상 공모전’을 실시한다. 7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 올해 여름 아웃리치 영상(릴스)을 60초 미만으로 제작해서 응모하면 된다. 영상에는 비공개 지역 정보나 노출되지 않아야 할 정보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 제작한 영상은 인스타그램 게시물에 해시태그(#온누리아웃리치2023) 하거나 이메일(onnurismart@gmail.com)로 보내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온누리교회 인스타그램(@onnuriacts29)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2-3215-3211(2000선교)

/ 홍하영 기자

수원온누리교회 창립 20주년

수원온누리교회가 창립 20주년을 맞이했다. 창립감사예배를 7월 2일(주일) 오전 11시 30분 수원온누리교회 본당에서 드린다. 이재훈 담임목사 설교, 특송 등이 이어진다. 오후 2시 30분 예배에서는 ‘감사콘서트’를 한다.

수원온누리교회는 2003년 사도행전적 교회의 비전을 품고 국내 세 번째 캠퍼스로 창립했다.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를 꿈꾸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김승훈 목사(수원온누리교회)는 “수원온누리교회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모든 성도가 하루 30분 기도하고, 이주민, 자립준비청년, 차상위 계층, 선교사 등을 섬기겠다”고 말했다.

Q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길
진리
생명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양성의 창조 질서는 과학적으로도 진리임이 이미 오랜 세월 증명되었습니다. 남자와 여자, 여자와 남자 외에 제3의 염색체는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명백한 과학적인 진리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요, 모든 사람 인간됨의 가장 기본적인 질서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양성의 질서를 깨뜨리고, 자신의 왜곡된 느낌을 새로운 질서로 세우고자 하는 흐름들이 일어났습니다. 유럽과 북미대륙을 중심으로 이 흐름이 올바른 질서인 것처럼 번져가고 있습니다. 기준을 바꾸는 흐름은 매우 위험한 것일 뿐만 아니라 악합니다. 기준을 바꿈으로써 자기를 정당화할 뿐만 아니라 그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이 위기에 처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양성의 질서를 지키는 것은 누군가를 혐오하는 게 아닙니다. 변화해서는 안 되고, 변할 수 없는 기준을 지키는 진리 수호의 흐름입니다. 이미 우리나라에 20여 가지가 넘는 개별적 차별 금지법이 충분히 있고, 또 보완하면 뭍에도 불구하고 평등법 혹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말을 바꿔 법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 핵심은 양성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중의 핵심은 ‘분류될 수 없는 성’이라는 양성의 질서를 무너뜨림으로서 인간 스스로, 자신의 느낌으로, 자신을 기준으로 여성으로 태어난 이가 남성을 선택하고, 남성으로 태어난 이가 여성으로 변할 수 있다는 시도입니다. 과거에는 일부의 선택으로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기준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도와줄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 되는 것을 이제는 기준 자체가 틀렸다고 하는 시대로 만들려고 합니다. 결코 용납될 수 없고, 이러한 법이 제정된 유럽과 미국 사회에 나타나는 문제와 모습들을 보면 우리가 살기 어려운, 숨쉬기조차 힘든 사회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뿐만 아니라 이 사회의 근간의 질서를 지켜야 합니다. 기준을 바꾸는 것은 잘못된 일임을 알려야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완전한 조화 가운데 관계로 존재하실 때 함께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양성을 통해 하나님이 계획하신 많은 축복이 있습니다. 남자는 남자다움을 통해, 여자는 여자다움을 통해 하나님이 인간다움을 만들어 가시고, 양성을 통해 자녀를 낳고,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계획하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이루어져 갑니다. 결혼이 양성의 구조에 근거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오직 결혼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형상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은 아닙

가족의 설계도

창세기 2:18~25

누군가와 나누는 친밀한 관계성

오늘 본문 18절에 〈창세기〉 처음으로 ‘좋지 않다’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지금까지 창조하신 모든 세계는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심히 가장 좋았다’고 평가하셨습니다. 18절에 좋지 않다는 것은 인간을 잘못 지으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인간이 혼자, 누군가와 관계없이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에 이르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인간은 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요, 혼자 있어서는 안 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그에게 알맞은 돕는 사람을 만들어 주겠다’”(18절).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됨은 누군가와 나누는 친밀한 관계성입니다. 몇 년 전 영국 적십자사의 조사에 의하면, 인구 6,500만 명 중에서 900만 명이 외로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로움을 담당하는 장관까지 임명했습니다. “가장 친한 동반자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360만 명이 “TV”라고 대답했습니다. 일본의 남성 4명 중 1명이 혼자 살고 있어서 ‘단신사회’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사는 인구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거주 형태에서 혼자 산다는 의미를 뛰어넘어 누구와도 관계없이 홀로만 존재하는 이들이 많아지는 것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될 것입니다. 진정한 인간의 행복은 진실한 관계 속에서 얻는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기쁘고 행복한 사람들을 보면 반드시 누군가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는 사람이라도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관계가 없는 사람은 불행하게 느껴집니다. 반대로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누군가가 곁에 있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마틴 부버(Martin Buber)가 〈나와 너〉라는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의 핵심은 “나를 알려면 너라는 존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성대명사 ‘It’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도 모두 it입니다. 건물, 자동차, 재물 등은 모두 it 중성대명사입니다. ‘너’라는 인격적 존재가 있어야 내가 누군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이코패스들은 ‘너’라는 존재가 없기에 자기를 보지 못하고, 이상한 상태에 빠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너’라고 불릴 수 있는 존재가 필요하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아담에게 알맞은 사람을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시고 시키신 일이 있습니다. 생물들의 이름을 짓는 일입니다.

남자의 ‘돕는 배필’ 여자 창조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온갖 들짐승들과 공중의 온갖 새들을 다 빚으시고 그것들을 아담에게로 데려오셔서 그가 어떻게 이름을 짓는지 보셨습니다. 아담이 각 생물을 무엇이라 부르든지 그것이 그의 이름이 됐습니다”(19절).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름을 짓는 일을 하게 하시는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통치권을 연습하고 행사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생물들을 보며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생각나는 대로 단어 연습을 했다는 게 아닙니다. 생물들의 특징을 연구하고 관찰하고 합당한 이름을 붙이도록 한 것입니다. 아담이 최초의 과학자입니다. 과학이란 무엇입니까? 어떤 현상을 발견하고, 그 현상에 이름을 부여하고, 현상과 현상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연결하는 것이 과학 아니겠습니까? 과학적 작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기대하신 것은 자신의 필요를 스스로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아담이 모든 가족과 공중의 새와 모든 들짐승에게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자기에게 알맞은 돕는 사람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20절).

각종 동물들이 아담 앞을 지나갈 때마다 모두 제 짝이 있다는 것을 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에게는 짝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인격적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동물들은 인간이 돌봐줄 수는 있지만, 인간의 짝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요즘 반려동물을 많이 키우는데 너무 지나쳐서 반려동물이 자신의 짝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동물은 동물일 뿐입니다. 돌보면서 기쁨을 주고, 때로는 웃음을 주고, 좋습니다. 그러나 인간 영혼의 짝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심각한 인간됨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담이 많은 동물의 이름을 지으면서 그 동물이 자신의 짝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여자를 창조하시기 전에 최초의 인간인 아담에게 돕는 자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알맞은 돕는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여자를 ‘돕는 배필’이라고 부릅니다. 히브리어는 ‘에젤’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에젤’이라는 단어를 오해해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여자가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적이고, 남자를 돕는 차원의 존재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에젤’이라는 단어는 놀랍게도 하나님을 가리키는 데 사용되

“가정의 설계도는 남자와 여자, 여자와 남자의 연합에 기초합니다.
가족을 중심으로 부끄러움 없는 친밀함의 축복을 누리고,
저출산, 가정 붕괴, 양성 질서 무너뜨리는 세상의 흐름에 저항하고,
행복한 가정을 보여주며 교회가 세상을 이끌어 가기를 축원합니다.”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여러 구절을 보면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모두 ‘에셀’입니다. <시편> 30편 10절을 보면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54편 4절에는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라고 했습니다. 모두 하와를 가리킬 때 썼던 ‘에셀’입니다. ‘에셀’이라는 단어는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적인 존재가 아니라 결정적인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이라는 번역보다 우리말번역에서는 ‘알맞은’, ‘꼭 맞는’이라는 단어를 써서 보완하려고 했습니다. 개역개정에서는 ‘돕는 배필’이라고 해서 돕는다는 의미만 부각 됐는데, 알맞은, 결정적인 존재라는 뜻입니다. 왜 여자가 남자의 결정적인 존재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은 아담 홀로 이룰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인간이 관계 속에서 누리는 기쁨과 만족은 홀로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내 뼈 가운데 뼈요, 내 살 가운데 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시니 그가 잠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갈비뼈 하나를 취하시고 살로 대신 채우셨습니다”(21절).

매튜 헨리 목사님의 주석이 왜 여자를 남자의 갈비뼈를 통해서 창조하셨는가에 대한 가장 정확하고 전통적이고 모든 이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해석입니다.

“여자를 남자의 옆구리에서 취한 갈비뼈로 만드신 것은 남자를 지배하라고 머리로 지으신 것도 아니고, 남자에게 짓밟히라고 남자의 발로 지은 것도 아니며, 남자와 동등하며 남자의 품 안에 보호받으며 심장 가까이에서 사랑받으라고 옆구리에서 지으신 것이다.”

하나님이 아담을 잠재우시고 최초의 신부인 하와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셨습니다. 최초의 결혼이요, 가정의 탄생입니다. 결혼과 가정은 나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배우자를 나에게 데려오시는 사건입니다. 아담이 하와를 만

나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아담이 말했습니다. ‘드디어 내 뼈 가운데 뼈요, 내 살 가운데 살이 나타났구나. 이가 남자에게서 취해졌으니 여자라고 불릴 것이다’”(23절).

‘내 뼈 가운데 뼈요, 내 살 가운데 살’이라는 표현이 하나님 가정의 설계에서 핵심적인 고백입니다. 이 히브리식의 표현의 의미를 깊이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배우자가 나에게 어떤 기능을 채워주는 존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남편은 돈을 벌고 아내는 살림을 하고, 나의 애정을 만족시켜주고, 나에게 어떤 역할과 기능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 그 자체, 그 사람으로서 나에게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내 뼈 가운데 뼈요, 내 살 가운데 살이라는 것은 나의 존재 가운데 가장 소중하기에 그를 사랑하면서 나를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뼈 가운데 뼈라고 했으니 그 뼈를 생각하면 나머지 뼈는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존재이기에 나를 잊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에 빠지면 사랑하는 대상 때문에 자기를 잊어버립니다.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부인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나 자신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살다 보면 자신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면서 도리어 나를 알아갑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말씀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때로는 자기를 잊어버릴 정도로 가족을 위해, 나라를 위해, 희생적인 삶을 산 사람들이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혼을 했어도 둘만의 행복을 추구하거나 자신만의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자기만의 행복을 위해서 결혼한 사람은 행복에 이를 수 없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우리는 자녀를 낳고 키우느라 일과 휴가와 편안함과 즐길 수 있는 여행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자녀를 낳게 되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풍요를 잃어버립니

다. 또 요즘 교육하기가 얼마나 힘들니까? 이런 경쟁 사회에서 자녀를 키우고 싶지 않습니다. 골치 아픕니다. 우리끼리 그냥 행복하게 살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녀를 낳지 않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근거하면 자녀를 낳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둘만 행복하기를 원하는 이들은 행복하기 어렵습니다. 자녀에게 모든 것을 쏟아부으며 때로는 속을 썩고, 때로는 희생하며, 자기 자신을 잃어버릴 정도로 헌신했던 우리의 조상들, 선배님들, 부모님들을 생각하면 그것이야말로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순종한 삶이기에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도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루터는 이런 복을 “새벽이슬처럼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자녀를 낳는 것은 새벽이슬 같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빠진 저출산의 위기는 창조 질서의 위기입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인 가정의 위기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가정을 설계하심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순응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나를 위한 가정이 아니라 나를 잃어버릴 정도로 헌신함으로 가족을 위해 살아가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떠남, 연합 그리고 친밀함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그 아내와 결합해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가 둘 다 별거했었지만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24-25절).

첫째, 떠남입니다. 부모와 결별하라는 것이 아니라 가장 우선적인 충성의 대상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보다 가까운 이가 없어야 합니다. 부모는 둘 사이에 개입해서는 안 되며, 두 사람은 부모로부터 정신적으로 독립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둘째, 연합입니다. 육체의 연합만이 아니라

영혼과 영혼의 연합입니다.

셋째, 친밀함입니다. 부끄러움이 없는 상태입니다. 부끄러움이란 자신을 감추는 것입니다. 친밀함은 서로가 서로에게 영혼의 거울처럼 투명하게 조금도 가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혼의 하나 됨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는 모든 인생의 기쁨, 아픔, 슬픔을 함께할 수 있는 누군가가 되는 친밀함입니다.

익숙함과 친밀함은 다릅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다릅니다. 가족 간에 오래 살아서 익숙해진 가정이 많습니다. 그런데 친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구별합니까? 부끄러움이 있으면 익숙하지만 친밀하지는 않습니다. 가족 간의 사랑 표현을 아직도 부끄러워하면 익숙은 하지만 친밀하지 않은 것입니다. 반대로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몇 십 년을 같이 살아도 서로의 습관이 낯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친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가족과 분열이 있는 경우에는 부끄러움이 그 가정을 지배합니다.

독일의 본 회퍼는 39살에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그가 죽기 2년 전 감옥에서 쓴 결혼의 설교가 있습니다. 그는 가정의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죽었지만, 결혼이 무엇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중 일부를 읽어 드립니다.

“결혼은 서로에 대한 사랑 그 이상의 것이다. 사랑이 결혼을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지탱하는 것이 결혼이다. 결혼 안에서 당신은 세계와 인류에 대하여 책임지는 위치에 처하게 된다.”

하나님 창조의 절정은 가정을 통해 축복을 누리며 번성하도록 계획하신 것입니다. 가정의 설계도는 남자와 여자, 여자와 남자의 연합에 기초합니다. 부모를 떠나 또 다른 새로운 부모가 되어 하나님의 창조의 명령이 계속 진행되는 것입니다. 가족을 중심으로 부끄러움이 없는 친밀함의 축복을 누리고, 저출산과 가정 붕괴, 양성 질서를 무너뜨리며 다양한 가족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가정을 무너뜨리는 세상의 흐름에 저항하고, 행복한 가정을 보여주며 교회가 세상을 이끌어 가기를 축원합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특별 인터뷰

1. '714 기도대성회' 함께 갑시다!
2. 올해 카운트다운에 꼭 참가해야 하는 이유

‘714 기도대성회’ 함께 갑시다!

7월 14일 오후 2시 인천 송도 컨벤시아

김홍주 목사(2000선교본부장)

내년 9월 한국에서 '제4차 로잔대회'가 열린다. '로잔운동' (the Lausanne movement)은 복음주의 선교운동이다. '로잔운동'이라 부르는 이유는 이 운동이 1974년 스위스 로잔에서 처음 시작됐기 때문이다. 그 이후 1989년 제2차 로잔대회(마닐라), 2010년 제3차 로잔대회(케이프타운)를 열고 세계적인 복음주의 선교운동의 방향을 정했다. 이 역사적인 운동이 2024년 인천에서 열린다. 온누리교회 이재훈 담임목사가 제4차 로잔대회 공동대회장으로 섬긴다.

'714 기도대성회'는 내년 막 오르는 로잔대회를 기도로 준비하고, 한국 교회의 영적 회복을 촉구하는 장(場)이다. 7월 14일 오후 2시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다. 김홍주 목사(2000선교본부장, 제4차 로잔대회 실행총무)가 '714 기도대성회'의 의미와 우리의 역할을 설명했다.

/ 김현준 기자 khj@onnuri.org

김홍주 목사(2000선교본부장)는 제4차 로잔대회 실행총무로 섬기고 있다. 하루하루 너무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제4차 로잔대회가 아직 많이 남은 것 같지만 준비할 게 너무 많아서 쉴 틈이 없다. 과연 로잔대회가 무엇이기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오랫동안 준비할까?

“요즘 부쩍 ‘로잔대회’에 대해 자주 듣고 계실 것입니다. ‘로잔대회’라는 용어가 낯설 수도 있습니다. 로잔대회는 1974년 복음주의 지도자 2700여 명이 스위스 로잔에서 모여 복음 전도와 세계 복음화를 촉진한 일을 계기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 복음은 항상 이단들과 세상의 도전을 받아 왔습니다. 교회가 순수한 복음의 능력을 잃고 변질할 때마다 힘을 잃고,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곤 했습니다. 선교도 약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상황을 애용해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과 의미를 재확인시키시고, 영적인 부흥과 각성을 주시곤 했습니다. 영적 부흥은 반드시 선교의 부흥을 가져왔습니다. 로잔대회가 바로 복음의 본질 회복과 세계선교를 촉진하는 운동입니다.

지금까지 로잔대회는 세 번 열렸습니다. 1974년 스위스 로잔에서, 1989년 필리핀 마닐라에서, 그리고 2010년 남아공 케이프타운에서 열렸습니다. 대회가 열리는 동안 수많은 모임이 자발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모임들이 복음주의 교회와 세계선교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로잔대회 이후 발표되는 로잔언약과 각 선언문은 복음주의 세계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교회를 연합시키는 역할도 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네 번째 로잔대회가 14년 만에 한국에서 열립니다. 저는 이 일이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하나님은 한국 교회에 놀라운 영적 축복을 부어 주셨습니다. 이제 받은 만큼 나누고, 돌려줘야 할 때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그동안 세계 복음화의 큰 역할을 감당했던

유럽과 미국 같은 서구 교회들이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현실입니다. 서구 교회가 제1, 2차 세계대전 이후 성경 말씀에 대한 확신을 잃고, 복음을 부끄러워한 안타까운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아프리카, 남미, 아시아의 교회들은 놀라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제4차 로잔대회는 비서구 교회 중 하나인 한국 교회가 아시아 교회와 함께 ‘세계복음화운동’의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큼니다.

제4차 로잔대회에는 전 세계 222개국에서 초청된 복음주의 지도자 5,5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사도행전>을 본문으로 함께 말씀을 연구하고, 소그룹에서 토의하고, 세계교회가 당면한 여러 도전과 복음 전파의 장애물들을 분별하고, 그 해결책을 찾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국제로잔운동 총재인 마이클 오와 이재훈 담임목사가 공동대회장으로 섬기고, 유기성 목사가 한국준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로잔대회가 열리는 그 자체가 정말 중요하고 뜻깊게 느껴졌다.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제4차 로잔대회를 한국 교회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했다.

“그동안 한국 교회는 놀라운 양적 성장을 거듭했습니다. 아마 국제본부에서도 한국 교회의 엄청난 성장과 부흥, 역량을 보고 제4차 로잔대회 유치를 제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음을 말입니다. 다음세대는 교회를 떠나고, 온갖 이단들이 사회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복음이 개인 구원의 영역으로 축소되고, 교회 밖 세상을 변화시킬 비전과 능력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아니라 근심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재훈 담임목사와 유기성 목사는 “제4차 로잔대회가 한국 교회의 영적 회복과 각성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복음의 총

체적인 능력을 회복하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재훈 담임목사는 복음주의 교회들의 연합을 특별히 강조하고 계십니다.

故 하용조 목사는 한국 교회가 반지성, 개교회주의에 머물러 있을 때 홍정길 목사님, 옥한흠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과 함께 복음주의 운동을 이끌었습니다. 복음주의는 온누리교회의 정체성과 같습니다. 복음주의는 성경 중심, 회심의 강조, 십자가 중심주의, 성령의 주되심, 전도와 선교, 사회적 정의를 강조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교파를 떠나 모든 참된 교회가 반드시 추구해야 할 핵심 가치입니다. 그렇기에 복음주의 교회들은 교단을 떠나 연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제4차 로잔대회는 복음주의 교회들의 연합과 협력 그리고 복음의 능력과 자신감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김홍주 목사는 ‘714 기도대성회’의 영적 의미를 “한국 교회가 영적 회복과 각성의 계기를 만드는 시간”이라고 설명했다.

“‘714 기도대성회’는 제4차 로잔대회를 준비하며 한국 교회의 영적 회복을 위한 두 가지 중요한 프로젝트 중 하나입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는 ‘말씀 운동’입니다. 복음 운동은 말씀 운동으로부터 비롯됩니다. 로잔준비위원회에서는 제4차 로잔대회 본문이 <사도행전>인 것을 고려해서 내년 1년 동안 한국 교회가 <사도행전>을 본문으로 함께 말씀을 준비하고 설교하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한국 교회 역사상 처음 시도하는 일이라 매우 기대됩니다. 두 번째 프로젝트는 ‘기도 운동’입니다. 기도 운동이 바로 ‘714기도 대성회’입니다. 영적 회복과 부흥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가능합니다. 한국 교회의 영적 회복과 세계 복음화의 과업도 철저하게 성령님이 주도하시고 일으키는 운동입니다.

제4차 로잔대회를 준비하면서 한국준비위원회는 전국적으로 45개 거점교회를 정하고, 1천

여 교회들이 연합해서 ‘714 기도대성회’를 개최함으로 기도 운동의 시작을 알리고자 합니다. 저는 한국 교회가 ‘714 기도대성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으로 나아가 회개와 은혜를 구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약해지는 것은 순전한 복음, 오직 십자가와 주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첫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복음이면 충분하다’는 복음에 대한 자신감과 하나님 앞에 한없이 겸비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자세를 회복해야 합니다.

‘714 대성회’에서 중보기도 서약식을 합니다. 222개국에서 5,500여 명의 대표들이 로잔대회에 참석할 텐데 1명의 대표 당 2명의 중보기도자를 세우려고 합니다. 이것을 ‘아론과 훌’ 프로젝트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중보기도 서약자들에게 매일 222개국 참석자들과 로잔대회 강사들을 위한 기도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해외에서 오시는 분들의 식사비가 한 끼에 2만 원 정도 될 것 같은데 한 사람당 한 끼 정도 대접하자는 의미에서 2만 원 후원자 10만 명도 모집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헌신과 기도가 모여 한국 교회 회복과 각성 그리고 세계 복음주의 운동의 새로운 물줄기를 형성하는 촉매제가 되리라 믿습니다.

온누리교회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축복이 많습니다. 이제는 나누고 섬겨야 할 때입니다. 온누리교회 이재훈 담임목사가 제4차 로잔대회 공동대회장이 되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영광스러운 헌신의 기회에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4차 로잔대회를 섬기며 결코 온누리교회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물 떠온 하인처럼 뒤에서 재정, 기도, 봉사로 조용히 섬길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혼란스럽고, 교회들이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이때 제4차 로잔대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시는 역사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의 기도와 동참이 필요합니다. ‘714 기도대성회’에 꼭 오셔서 마음을 모아주십시오.”

환자 치유하고, 영혼 구원한다!

그 아름다운 사역 그리고 사람들 ‘CMN’

(Christian Medical Network)

공생애 기간 예수님은 늘 복음을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치유하셨다.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명도, 아픈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역도 단 한번 소홀하지 않으셨다. 사랑과 긍휼이 가득한 분이시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마음을 꼭 닮은 사역팀이 있다. 의료선교팀 ‘CMN’이다. CMN은 ‘Christian Medical Network’(이하 CMN)의 약자다. 의료인과 비의료인이 협력해서 열방의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다. 그 아름다운 사역과 섬기는 사람들을 소개한다.

/ 김현준 기자 khj@onnuri.org

온누리교회 의료선교 역사가 길고 깊다. 온누리교회 의료사역은 1985년 시작됐다. CMN도 그때 만들어졌다. 당시 5개 팀이 자발적으로 사역을 시작했다. 특히 2005년 스리랑카 쓰나미 피해지역과 2006년 강원도 평창 수해 피해지역에 의료선교팀과 긴급재난구조팀을 파견하며 그 중요성과 전문성이 부각됐다.

온누리교회는 긴급구호가 필요한 곳에서 신속한 도움을 주려고 2006년 9월 온누리재난구조팀 ‘램프온(Lamp On)’을 발족했다. 같은해 11월 의료선교팀을 CMN으로 통합해 지금까지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CMN은 현재 8개 현장사역팀(마하나임팀, BEE팀, 마노아팀, 드림팀, 라파팀, 토브팀, 살롬팀, 시온팀), 4개 네트워크팀(대외협력, 약무, 의료데스크, 중보기도), 3개 지원팀(미용, 수기치료, 사진), 선교사케어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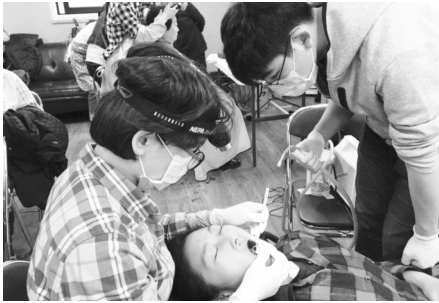
CMN을 섬기는 아름다운 사람들은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달려가고 있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CMN의 발걸음을 잠시 멈추게 했다. 사람을 만나서 섬기는 사역이기에 더는 사역을 이어갈 수 없었다. 그렇게 4년이 흘렀다. 그렇다고 CMN 사역을 포기할 수 없었다. 아직도 열방의 환자들 CMN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한경식 팀장(BEE, 비뇨기과)이 4년 만에 의료선교 아웃리치를 떠났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에 순종할 때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새삼 깨달았다.

“2019년 3월 평창대화남부교회 아웃리치를 다녀온 이후 4년 만에 다시 갔습니다. 원래는 2020년 3월에 아웃리치를 가기로 했었는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무려 4년 만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순종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새삼 알게 됐습니다.”

아웃리치를 준비하는 과정이 순탄치 않았다. 한경식 팀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오랜 기간 사역이 멈춘 것이 영향을 줬다고 분석했다.

“전반적으로 팀 분위기가 가라앉아 있었습니



그러면서 저도 힘이 빠지고 불평이 올라왔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분명히 있으리라 믿고 기도했습니다.”

4년 만에 CMN과 평창대화남부교회 성도들이 만났다. 그런데 한 권사님의 표정이 유독 어두웠다.

“느낌이 이상해서 조심스럽게 ‘권사님 속상한 일이 있으세요?’라고 물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1년 전부터 마음에 시험이 있어서 예배가 기쁘지 않고 음식도 잘 못 드시는 상태였습니다. 극단적인 생각도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권사님이 우울증에 걸린 걸 교회 사람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마침 사모님이 진료실에 오셔서 제가 자초지종을 설명했더니 권사님이 갑자기 평평 우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한경식 팀장도 눈물을 흘렸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알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4년 만에 CMN을 그곳에 보내신 이유를 알 것 같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이유가 그 권사님을 살리기 위함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우리의 사역이 힘을 잃어 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여전히 CMN을 통해서 일하고 계심을 확신했습니다. 아웃리치를 마치고 돌아오는 발걸음이 정말 가벼웠습니다.”

진미령 성도(라파팀, 약사)는 CMN 사역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귀한 사람들을 많이 만났다.

“과거 CMN 창고에 약이 구분 없이 쌓여 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 자매가 약을 모아 나누면서 목록을 작성하는 일을 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술선수범해서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 자매처럼 CMN 사역에 참여하면서 보석보다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진미령 성도는 점수 봉사자, 진료 전 상태를 확인하는 간호사, 환자들을 치료하는 의사, 약을 만들어주는 약사까지 환자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치유하고, 영혼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CMN이라고 설명했다.

“CMN은 누군가의 우산이 되어주고, 온기를 나누어주는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그분들과 함께 살아가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신다고 믿고 섬기고 있습니다.”

CMN은 의료선교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역도 한다. 지원팀에서 미용, 수기치료, 사진촬영 등을 섬기고 있다. 강유정 권사(마하나임, 미용)는 열떨결에 CMN 지원팀에 합류했다.

“18년 전 CMN 아웃리치에서 미용팀을 모집했습니다. 손을 들지 않고 있었는데 계속된 권면에 옆에 있던 동역자가 제 손을 들었습니다. 그 바람에 저도 열떨결에 합류했습니다. 사실 그때는 선교에 대한 마음이 크게 없었습니다. 미용은 먹고 살려고 시작한 일이었고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 그때 사역하지 않았으면 미용을 계속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진정한 기쁨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강유정 권사는 CMN은 단순히 사역하는 공동체가 아니라고 했다. 서로 도와주고 기도해주는 사랑의 공동체라고 소개했다.

“제가 CMN에서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는 저와 아이들만 교회를 다녔습니다. 남편도 교회를 다니게 해달라고 팀에 기도제목으로 내놓았는데 진심으로 함께 기도해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남편이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가정

이 되었습니다. 근처에 사시는 마하나임 한의사 선생님도 늘 도움을 아끼지 않고요. CMN을 섬기면서 정말 많은 선물을 받았습니다”

강유정 권사는 CMN과 함께하면 누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누구나 섬길 수 있습니다. CMN에 오셔서 집을 들어주거나 점수를 받고, 청소를 도와주셔도 정말 큰 도움입니다. CMN 사역에 참여해 보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CMN과 함께 동역해주시요”

이학일 장로(CMN 대표장로, 가정의학과)는 환자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간다. 그의 섬김이 얼마나 헌신적인지 모른다.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도움이 필요한 곳이라면 두 팔을 걷어붙인다.

“CMN 추자도 아웃리치가 기억납니다. 예배당에서 진료를 마치고 성령 집회를 했었습니다. 참여한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해서 방언이 터지고, 뜨거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또 가리봉동에 있는 한 조선족 교회를 섬겼는데 진료하면서 환자들과 친해져 안수 기도를 해주며 친밀한 교제를 했었습니다.

이학일 장로는 선교지에서 환자들과 희로애락을 함께 했다.

“태국 아웃리치에서 홍수로 범람한 메콩강을 따라 현지인들을 만나러 간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만 믿고 산 넘고 물 건너 사역했었습니다. 러시아 아웃리치에서는 현지인들이 한국인 의사들을 믿지 못해서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국 성도님들이 후원해준 물품으로 환자를 모았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케냐 아웃리치에서는 작은 마을이라 환자가 적었다고 생각했는데 구름처럼 사람들이 많이 와서 놀랐습니다. 알고 봤더니 수 km 떨어진 마을에서 의료선교를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살면서 의사를 처음 보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커다란 바오바브나무 그늘에서 환자를 진찰할 순간이 기억에 남습니다. 지난해 태국 아웃리치를 준비하다가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상태가 정말 안 좋았지만 아웃리치에 참여하고 싶어서 수액을 맞으며 겨우 떠났습니다. 그런데 태국에 도착하자 몸에서 힘이 솟아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학일 장로가 묵묵히 섬김을 이어가는 CMN 팀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잊지 않았다.

“CMN 사역에 참여하시는 모든 팀원의 아름다운 협력 덕분에 하나님 은혜가 더 많아졌습니다. 헌신과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섬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앞으로도 환자들 있는 곳에 동행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는 CMN이 되기를 바랍니다.”

온누리교회 성도들에게 CMN을 위한 기도

와 도움도 부탁했다.

“CMN이 코로나19로 멈춰있던 사역을 새로운 마음으로 힘차게 재개합니다. 의료인과 봉사자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CMN과 함께 동역해주시요. 환자들을 치유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CMN에 많은 응원

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문의: 02-570-7522



류현모 교수의 기독교 세계관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젠더주의에 의한 의료 정치화 위험성

젠더주의가 미국에서 급진적으로 창궐하게 된 것은 의료에서 젠더주의가 주도권을 잡았기 때문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성적지향과 성별 정체성이 포함된 것이 주도권의 강력한 동력이 되었다. 미국은 노예제도라는 오랜 역사적 배경 아래 1960년대까지 법적으로 인종을 차별했다. 남북전쟁 이후에도 미국 남부의 주에서는 여전히 흑인을 차별하는 관행이 변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차별당한 흑인이 고발했을 때 차별하지 않았음을 스스로 증명해야 했다. 그렇지 못한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법률이 제정된 것이다. 피부 색깔은 태어날 때부터 타고나는 것으로 차별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는 것에 모두가 동의한다. 문제는 성적지향과 성별 정체성처럼 자신이 선택한 것에 대해서도 인종, 성별, 국적 같은 태생적 조건들과 동일한 지위를 부여한 것이다. 미국은 청교도들이 주류를 이루었던 문화로 인해 성적지향과 성별 정체성의 소수자들을 강하게 핍박했던 역사가 있었다. 특히 1969년 ‘스톤월 인(Stonewall Inn) 사건’은 경찰에 의한 피의 진압으로 인해 동성애자들의 강력한 시위가 일어났다. 당시 대중들의 동성적인 여론에 힘입어 성소수자들도 포괄적 차별금지법 보호 대상이 되었다.

아무리 유능한 의료 전문가라도 모든 질병에 대해 모든 것을 알 수 없다. 그래서 치료 옵션에 대한 지침들을 제공하기 위해 의료계의 각 위원회에서 각 질환에 대해 표준치료 지침을 개발한다. 이러한 표준은 일반 의사들에게 치료를 안내하고, 그 표준을 따를 때 법적책임으로부터 보호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미국에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서 의사협회의 성소수자 치료와 연관된 각 위원회에는 성소수자 집단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참여하도록 강제되었다. 의료인들이 차별금지법의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그들의 주장을 막기는 힘든 상황이다. 미국의사협회, 미국소아과학회, 내분비학회에서 트랜스젠더 의학에 대한 기준을 수립하는 위원회는 트랜스젠더 환자(심지어 미성년자 포함)가 자신의 성별 정체성에 ‘편안함’을 얻을 때까지 사춘기 차단제, 반대 성호르몬, 수술 등의 치료를 받는 게 ‘의학적으로 필요하다’고 결정함으로써 논쟁의 방향을 바꿔버렸다. ‘의학적 필요’라는 것은 중요한 지정이다. 보험회사는 그 치료에 대한 비용을 보장해야 한다. 만일 이러한 치료가 의학적으로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었다면 그 치료비를 감당할 수 있는 개인은 거의 없을 것이고, 의료산업 집단이 기대했던 막대한 이익도 사라졌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차별금지법이 통과될 경우
일부 정치인이나 젠더활동가가 원하는
정책이나 법률이 수립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념의 전쟁에서 침묵하거나
양보만 할 때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 있다.”

2000년대 초반부터 젠더이념 운동가들은 ‘젠더불쾌증’에 대한 유일한 치료가 ‘젠더확정’이며, 그 치료가 ‘의학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관철하려는 노력을 시작했다. 트랜스젠더 건강을 위한 세계전문가 협의회(WPATH, the World Professional Association for Transgender Health)가 작성한 <트랜스젠더 및 성별이 다양한 사람의 표준 진료지침-버전 8>은 의료 제공자에게 환자가 선호하는 성별에 맞춰주도록 지시하는 48페이지 분량의 지침서다. 이 문서에서 의사는 환자가 편안함을 느끼는 치료를 할 것을 반복적으로 권장한다. 저자들은 “연구 대상이 상대적으로 너무 적었고, 추적연구 기간도 차이가 크게 났지만(6개월~7년), 젠더확정 치료를 받은 청소년의 삶이 전반적으로 개선되었다”고 결론지었다. 그들의 연구 방식이나 장기적인 효능에 대해 확신이 없음을 인정하지만, 치료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증거기반젠더의료협회(SOGM: Society for Evidence-Based Gender Medicine)라는 이름으로 조직된 국제 의사 그룹은 의학협회의 입장을 인용하면서 젠더이념 활동가들이 위원회의 논의를 지배해 대안적 견해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트랜스젠더 치료표준(Transgender Standards of Care)인 ‘젠더확정 치료’가 성인이든 미성년자이든 자신이 원하는 성별로 ‘전환’하도록 장려하는 것을 지지하는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비판한다.

트랜스젠더 의학은 정치화되었으며, 슬프게도 과학이나 의학의 많은 분야에서 일반적 현상이 되었다. 젠더활동가들은 자신들의 결론을 만든 다음 그 관점을 ‘과학적 합의’라고 공개적으로 홍보하면서 “과학을 믿으시오”라고 말한다. 그들의 주장에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을 ‘과학을 부정하는 자’라고 규정한다.

우리나라는 많은 경우 미국의 표준들과 유사하게 치료 지침이 지정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의사가 아닌 젠더활동가들의 주도로 만들어진 미국의학협회의 젠더확정 치료 지침을 검토할 경우에는 전문가들에 의한 철저한 근거 중심의 검증이 필요하다. 그리스도인 의사들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도 차별금지법이 통과될 경우 일부 정치인이나 젠더활동가가 원하는 정책이나 법률이 수립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의 예에서 보듯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념의 전쟁에서 침묵하거나 양보만 할 때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기독교 세계관으로 살아가기

개발과 원조

이경숙 집사
(서대문 공동체,
온누리세계관학교)

힘든 업무를 마치고 저녁에 편안한 마음으로 TV를 켜면 가끔 보는 화면이 있다. 아프리카 아이들이 믿을 수 없을 정도의 갸마른 몸으로 흙탕물을 갠 모습의 NGO 국제개발 모금 광고다. 이러한 광고들을 일종의 ‘가난팔이’라고 비난하기도 한다. 별생각 없이 광고를 지나치는 사람도 있고, 불편한 마음을 품는 사람도 있다. 우리는 그 내용을 접할 때마다 일개 그리스도인인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고, 개발과 원조는 나와 먼 이야기라고

생각한다. 성경도 그러한 우리의 생각을 지지할까?

존 스토틀 목사는 그의 저서 <현대 사회 문제와 그리스도인의 책임>에서 단호하게 “No”라고 말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는 기아와 빈곤에 대한 우리의 무관심은 ‘그들과 나는 상관 없다’는 인식 때문이다. 성경은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와 것이로다”(시 24:1)라고 말씀하고 있다. 지구 그 안에 사는 사람들 모두 그분께 속했다. 또 성경의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돌보라”는 말씀은 가난한 자를 외면하지 말라는 뜻이다.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국제개발과 원조 역사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을 재건하기 위한 마셜 플랜(Marshall plan)에서 비롯됐다. 가난한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겠다는 비전이 그 시작이다. 더 나아가 세계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서 시작됐다. 1980년대 부유한 소수의 국가에서 극적이고 폭발적인 경제 성장이 일어났다. 그 부를 나누는 데는 완전히 실패했다. 새 천 년이 시작되면서 중국과 인도 같은 몇몇 나라가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루었지만, 국민 대다수가 여전히 빈곤의 땃에 빠져 있다. 이처럼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전히 혼란스럽다. 같은 나라 안에서 빈부격차가 심화하고, 부자 나라와 가난한 나라 사이의 간격도 벌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 문제들에 적용할 수 있는 성경적 원리가 무엇일까? 존 스토틀 목사에 의하면 ‘단일성’과 ‘평등’이다. 하나님이 단 하나의 백성(인류)을 창조하시고, 단 하나의 거주지(지구)에 두셨기 때문이다. 우리는 단일성의 원리에 따라 세계의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그들이 다른 민족이거나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회피할 수 없다. 원조는 성경의 평등 원리를 실행하는 한 방법이다. 특권의 불평등을 없애는 한편 모든 이가 하나님이 주신 잠재 능력을 개발하도록 교육과 참여를 통한 기회의 평등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한국은 전쟁의 폐허 속에서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짧은 기간에 세계 경제 순위 12위 선진국으로 발전했다. 세계 최빈곤국으로 가장 많은 원조를 받은 나라가 2011년 50여 년 만에 부자나라 클럽인 OECD 개발원조위원회 회원이 되었다. 명실공히 원조 공여국으로 탈바꿈했다. 우리나라 국민의 성실함과 근면성이 원조와 함께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역할을 했지만 사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설명할 수 없다.

정부 기관인 KOICA를 포함해 150여 개 개발 NGO들이 활동하고 있다. 온누리교회의 NGO 더멋진세상을 포함해 많은 기독교 기반 단체와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대한 사회적 책임으로 개발과 원조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전 세계에는 아직도 ‘선한 사마리아인’들이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이들이 많다. 지금도 매년 5백만 명의 어린이가 5번째 생일을 넘기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고 있다. 우리의 개인적인 노력만으로 빈곤과 불평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노력하는 것은 자신을 비우고, 종의 모습을 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순종이다. 그 자체만으로 충분한 가치와 의미가 있다.

영국의 대법관이었던 고든 브라운은 2005년 펴낸 <아프리카 보고서> 서두에서 동시대 사람들에게 물었다. 그가 남긴 질문이 시간을 뛰어넘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묻고 있다.

“지금이 아니라면, 언제인가? 우리가 아니라면, 누가 그 일을 할 것인가?”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에 대한 확신 갖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던 친구가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 친구가 상처받은 마음을 회복해서 다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조언 부탁드립니다!”

故 데스몬드 투투(Desmond Tutu)는 1984년 노벨 평화상을 받은 남아공 최초의 흑인 감독이다. 당시 열악하고 불의한 환경에서도 억눌리고 차별받는 사람들 편에 서서 참 많은 일을 했다. 그는 ‘남아공의 도덕적 양심’이라고 불릴 만큼 탁월한 사람이었다.

〈타임〉(Time)지에서 데스몬드 투투를 인터뷰하면서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그는 서슴없이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로마서〉 5장 8절입니다”라고 대답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롬 5:8).

이 기사를 읽으며 큰 감동이 있었다. 그에게 주어진 환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밖에 없을 만큼 불의하고 부당했기 때문이다. 사람이라면 응당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고 원망하며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불의와 부당함 가운데서 그가 투쟁을 가능하게 만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참 거칠고 험하다.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사는 자연환경보다 부패한 인간의 마음에서 비롯된 이기심과 죄된 성품이 더 거칠고 험하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끊임없이 새로운 피조물로의 변화를 갈망한다. 그런데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갈망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결단하지만 잘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예배하기 위해 모인 교회공동체라고 해서 다를 게 없다.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소유와 신분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남의 것을 욕심내거나 착취하는 일이 어느새 일상이 되어버렸다. 설령 억울하게 착취당하는 일이 있더라도 믿음 안에서 의연해지고 싶은데 약간의 손해에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자존심이라도 상한 날은 잠조차 이룰 수 없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그런데도 우리가 왜 여전히 교회로 모여야 할까? 데스몬드 투투 감독이 인용했던 〈로마서〉 5장 8절 말씀 때문이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죄인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아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다. 이 사실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이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고난 끝에 형통을 가져다주시길 거라는 확신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다. 같은 신앙관을 가지고 마음에 맞는 사람들과 격에 맞는 종교 생활을 하려고 교회를 다니는 것 또한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

다는 사실 때문에 교회로 모이는 것이다. 그 사실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부당하고 불의한 세상 가운데 살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이유다.

때로는 교회에서 상처를 받을 때가 있고, 수많은 사람에게 실망하는 일도 분명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우리가 교회로 모이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단 하나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은 죄인 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을 보여주셨다. 하나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한다. 그 확신이 있다면 우리가 살면서 겪는 어려움과 불의함을 넉넉히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최대홍 목사
(요셉공동체)

크리스천을 위한 부부상담

갈등을 보는 부부의 시선

“배우자가 싫은 행동을 해서 마음에 불편함과 싫은 마음이 생길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혼 10년차 부부들에게 질문했다. 아내들 대부분 직접적으로 대화를 시도하겠다고 했다. 배우자가 싫은 행동을 반복해서 불편한 마음이 생긴다면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 하겠다고 했다. 싫어지려고 하는 이유에 대해 말하고, 서로 푸는 시간을 갖겠다는 대답이 대부분이었다. 물론 일부 대답에서는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돌려서 말하겠다고 했다.

아내들은 관계의 불편함이 있을 때 회피하고 참기보다 솔직하게 말로 표현하고 풀기를 원한다. 만약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하고 마음에 꼭꼭 담아둬야 하는 상황이라면 큰 고통이 될 것이다. 일반적인 부부는 관계에서 어떤 불편함이 있더라도 그 불편한 자리를 지나서 서로 이해하는 사이로 지내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 물론 이 기대가 계속 좌절된다면 아마도 아내의 마음에 좌절감과 단절감으로 인한 마음의 병이 생길 수도 있다. 아내들은 서로가 소통하며 잘 지내는 것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기에 어떻게든 직접적인 대화를 하고자 한다. 대화의 편안한 소통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아내들은 답답함을 많이 느낄 것이다. 서로 소통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구불거리는 우회 도로보다 울퉁불퉁해도 직선 도로를 택하겠다는 의미라고 생각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든 배우자가 싫어진 마음이 생겼을 때 직접 표현하고자 하는 마음이 강하다

는 것이다.

반면 남편들의 대답은 아내들과 다소 다른 느낌이다. 아내들이 구불거리는 우회 도로를 택하지 않고 거칠더라도 직선 도로를 택했다면, 남편들 대부분은 직선 도로보다 구불거리는 우회 도로를 택하거나 아니면 더는 갈 수 없는 ‘도로 없음’을 택할 가능성도 높다. 배우자가 잠시 싫어진다면 “잠시 떨어져 있겠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만 씨름하는 것 같은 시간을 갖겠다”, “먼저 나 자신을 통찰하고 문제를 파악하는 시간을 갖겠다”식의 대답이 대부분이었다. 물론 모든 상황에서 남편들이 저

정들과 한바탕 싸우는 시간을 갖는다.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 자신의 마음을 변화시켜달라고 말이다. “사랑하라”는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고 배우자에 대한 미운 마음이 있는 것을 수용하기 힘들어서 남편들의 마음은 이미 전쟁통이다.

부부 사이의 불편한 마음과 갈등이 발생하는 것은 관계의 문제다. 그러나 남편들은 관계의 문제를 관계에서 해결하기보다 자신의 문제로 끌어안고 혼자 신앙 안에서 해결하려고 애쓰는 경향이 크다. 부부 갈등이 생기고 배우자가 싫어지는 상황에서 남편은 우선 관계의

자 해결하고자 하는 방식의 차이가 부부의 갈등을 더 깊어지게 한다. 서로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 만나서 마음의 이야기를 하는 게 필요하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부부에게 갈등 해결과 대화 연습 등의 훈련이 필요하다. 부부 관계 훈련을 받은 남편은 회피만 하겠다고 하지 않았다. 물론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충분히 갖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그 시간이 지난 후에 배우자와 만나서 이야기하겠다고 했다. 남편이 노력하게 되기까지 훈련의 시간이 큰 도움을 주었다고 했다. 훈련은 서로에게 익숙한 습관 중에 불필요하거나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은 벗어버리고, 유익한 것은 숙달해서 습득하는 과정이다. 늘 회피만 택했던 남편이 훈련을 통해서 대화를 시도하게 된다. 늘 참지 않고 직접 쏟아냈던 아내라면 마음을 정리하고 통제되는 말을 표현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부부 관계의 유익한 훈련이라고 할 수 있다. 부부가 서로 긍정적인 관계의 훈련을 통해서 대화 가운데 손을 잡고 다시 웃는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다.



황규복 박사,
김숙경 소장 부부
(두란노 결혼예비학교
부부강사, 〈그런 당신이
좋다〉 저자)

“부부는 긍정적인 관계의 훈련을 통해서 갈등을 극복하고 회복할 수 있다.”

렇게 결심한다고 할 수 없다. 적지 않은 남편들은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직접적으로 자신의 불편한 마음을 말하는 것을 주저한다고 볼 수 있다. 어찌하든 혼자서만 부부관계에서 오는 힘든 마음을 해결하려는 마음이 강하게 자리잡고 있다. 배우자와 관계의 문제, 배우자에 대한 불편한 마음이 들었을 때 두 사람의 관계의 자리에 나아가 해결하기보다 동굴을 택하는 경향이 있다.

조사했던 대상이 신앙 있는 남편들이기에 그들에게 동굴은 기도의 골방이다. 남편들은 기도의 골방에서 마음에 일어나는 불편한 감

불편한 자리에서 벗어나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자 한다. 물론 혼자서 해결하려고 애쓰고 발버둥 쳐도 불편한 마음이 해결되지 않으면 다양한 긍정적인 혹은 부정적인 표현방식으로 표출하기도 한다. 하지만 만일 혼자 기도하면서 마음이 녹고, 상황이 이해가 되고, 불편한 마음이 해결된다면 배우자에게 털어놓으려고 하지 않는 경향도 다소 있다. 사실 부부 관계에서는 표면적인 결과도 중요하지만 소소하고 다양한 감정적인 변화와 회복의 과정을 나누는 일이 동반되면 훨씬 관계에 도움이 된다. 아내들의 직접적인 표현방식과 남편들의 혼

긴급 중보기도 요청

“사역자 압둘카림의 석방을 기도해 주세요!”

시리아 난민 압둘카림 사역자의 석방을 기도해 주십시오. 온누리교회가 협력하고 있는 이스탄불의 NLS(New Life Spiritual church) 난민교회 압둘카림 사역자가 튀르키예 당국에 의해 구금되어 있습니다. 공문서위조 혐의라고 합니다. 일이 잘못되면 시리아로 추방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그가 몇 년 전 시리아에서 튀르키예로 피란 와서 난민 신분증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름의 스펠링이 틀려서 정정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튀르키예 당국은 정확한 이름으로 신분증을 다시 만들어 줬다고 합니다. 당시 절차에 따라 지문도 찍었고요.

그런데 최근 압둘카림 사역자가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러 관공서에 갔는데, 그 관공서 관리자가 압둘카림 사역자의 지문에 두 개의 이름이 있음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그를 공문서위조 혐의로 체포하고 구속했다고 합니다. 현재 압둘카림 사역자는 이스탄불 구치소에서 이송되었고, 그를 추



방하려고 시리아에서 가까운 튀르키예 남부 구치소에 수용돼 있습니다.

이 상황은 신분증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정정 이전의 이름을 삭제하지 않아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무고한 압둘카림 사역자가 혐의를 뒤집어쓰고,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시리아로 추방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만일 그가 시리아로 추방되면 기독교로 개종한 이력 때문에 지금도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최전선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큼니다. 그 최전선에서는 지금도 전사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압둘카림 사역자는 구속 전에 이스탄불 중심 지역 근처에서 새로운 난민교회를 개척하는 일의 팀장을 맡아 15가정과 함께 예배공동체를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전에 압둘카림 사역자는 NLS 난민교회의 자체 제자훈련 프로그램인 ‘Peter’s Boat’ (온누리교회의 예수 제자학교와 유사)를 졸업했고, 현재 Miami International 신학대(MINTS) 온라인 과정에 재학 중입니다. 얼마 전에 결혼해 두 살 된 딸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한 난민의 억울함을 넘어 영적 공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NLS 난민

교회가 피란지 이스탄불에서 곳곳하게 성장해서 시내 중심부 근처에 새로운 교회 개척을 앞두고 있었는데, 이를 방해하려는 사탄의 영적 공격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 공격은 성도들의 기도로 퇴치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온누리교회 성도님들께서 압둘카림 사역자의 석방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아울러 새 교회 개척을 방해하는 사탄을 꾸짖는 기도도 해주십시오.

문의: 02-796-3217

/ 권기현 총무(세계인터넷선교협회의)

* NLS교회(New Life Spiritual church)는 튀르키예 이스탄불과 가자안텨에 있는 교회입니다. 온누리교회 2000선교본부 중동융합선교팀과 2017년 MOU를 체결하고, 난민선교 분야에서 꾸준히 협력해온 교회입니다. 올해 초 튀르키예에 지진이 발생했을 때 NGO 더멋진세상에 구호 성금을 지원받아 현장에서 시리아 난민 피해자 구호와 전도에 앞장섰던 교회입니다.

〈생명의 삶〉 QT 프리뷰(Preview)

박해와 흠어짐, 그리고 복음 전파

7월 3~9일
〈사도행전〉 7:1~9:9



목상포인트 1: 성전에 대한 편협한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유대인들은 스테반의 설교에 이를 갈며 귀를 막고 돌을 던진다. 자기 확신과 자기 열심은 하나님 말씀에 귀를 닫고 성경을 거스르게 한다. 반면 스테반은 돌

이 책망하자 유대인들은 마음에 찔림을 받고 분노해 그를 돌로 쳐 죽인다. 성령 충만한 스테반은 순교하는 순간까지 주님께 자신의 영혼을 맡기며 그들을 용서해 주시길 기도한다.

목상포인트 2: 박해와 흠어짐은 복음 전파의 새로운 기회다. 교회가 흠어지게 되자 빌립은 유대인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사마리아인의 성으로 가서 복음을 전한다. 이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성취다. 또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빌립으로 인해 에디오피아(에티오피아)에 영향을 끼칠 한 영혼이 구원받는다. 박해를 통해 예수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역자가 끼치는 영향력이 어떠한지 묵상하자.

▶스테반의 순교 이후 사울은 교회를 없애고자 성도들을 옥에 가둔다. 박해로 흠어진 성도들은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한다. 빌립이 사마리아성에서 복음을 전하자 표적이 나타나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 그 성에 기쁨이 가득하다. 마술사 시몬도 세례를 받지만, 돈으로 성령의 권능을 사려다가 베드로에게 강한 책망을 받는다. 그 이후 빌립은 주님의 사자(천사)가 이끄시는 대로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 길로 가다가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난다. 빌립은 내시가 읽고 있던 말씀부터 시작해 복음을 전하고 그에게 세례를 베푼다. 주님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다룬 곳으로 데려가시고, 그는 거기서도 복음을 전한다.

목상포인트 3: 극악한 죄인도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된다. 박해자 사울에게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시자 사울은 사흘간 시력과 기력을 상실한 채로 지낸다. 사울을 찾아오신 주님의 열심이 어떠한지, 흑암에서 지낸 사흘간 사울의 관점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묵상하자.

▶사울은 다메섹 그리스도인들을 결박해 예루살렘으로 잡아 오려고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청한다.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그는 빛 가운데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극적인 체험을 한다. 그 이후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로 다메섹성으로 들어가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한다.

- 적용을 위한 가이드

▶복음을 가로막는 고정관념이나 편견이 무엇인가? 예배와 묵상을 통해 나의 마음을 부드럽게 갈아엎어 주시기를, 말씀이 심겨 열매 맺는 좋은 땅 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하자. ▶고난과 핍박을 대하는 나의 마음이 어떤지 돌아보자. 슬픔과 좌절에서 눈을 들어 새로운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자. ▶나의 흠어짐의 사건이 무엇인가? 가족, 교회, 일터에서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이 있다면 그 사건과 환경을 통해 복음을 전할 힘과 지혜를 주시기를 간구하자. ▶자기 확신에 사로잡힌 사울의 열심보다 그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더 크고 강력하다. 내 힘과 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를 다루고 빚어 가시는 방법을 신뢰하자.

/ 〈생명의 삶〉 편집부

온누리가 함께 하는 기도

수파를 보를 도야 자매를 위해!

펍택M센터 몽골어예배를 드리는 수파를 보를 도야 자매를 위해서 기도해주시고, 수파를 보를 도야 자매는 남편 밍스 밍바바탈 형제와 함께 한국에서 생활한 지 2년 정도 되었습니다. 지난해 서울에 있는 마리아산부인과에서 인공수정으로 임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23주만에 조산했습니다. 지난 6월 11일 12시경 서울삼성병원에서 미숙아를 출산했습니다. 아기는 500g밖에 되지 않고, 현재 인큐베이터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수파를 보를 도야 자매가 외국인으로서 의료보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금전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인큐베이터 비용이 하루 100만 원이나 되는데 4개월 정도 이용해야 합니다. 산모와 아기가 건강하게 치료받으려면 많은 돈이 필요한데 돈을 마련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수파를 보를 도야 자매와 아기를 위해 기도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산모와 아기를 건강하게 보호해주시기를 기도해주시고, 금전적인 어려움도 잘 해결되도록 기도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시기를 기도해주시고, 수파를 보를 도야 자매가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가족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수파를 보를 도야 자매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임을 경험하도록 기도해주시고, 도와주십시오.

문의: 010-5780-8410

/ 전홍렬 선교사(펍택M센터)

가족과 함께 떠나는 '신앙교육여행'

이세영 목사
(대전온누리교회)

가만히 있어도 땀이 흘러내리는 무더운 여름이 시작됐다. 땅을 뜨겁게 달구는 해가 그만 좀 떴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든다. 내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7월의 해는 더 길

게 떠 있다. 무더운 7월의 해보다 뜨거운 사랑 이야기가 있다. 7월의 해가 떠 있는 시간보다 훨씬 긴 시간 이어지는 사랑 이야기다. 그 사랑 이야기를 찾아 7월 신앙교육여행은 전라북도 김제로 떠나보려 한다.

1884년 2월 미국성서공회가 발행하는 잡지 <Bible Society Record; BSR>에 한 조선인의 간절한 열망이 담긴 편지가 실렸다. “조선에 선교사를 파송해 달라”는 내용이 담긴 이수정의 호소였다. 이 편지는 선교지를 결정하지 못하고 방황하던 선교사의 마음을 움직였고, 마침내 1885년 4월 그가 조선 땅에 첫발을 내디뎠다. 조선 최초의 선교사 언더우드(Horace Grant Underwood)다.

언더우드 선교사는 정신없이 바쁜 첫 번째 사역기를 마치고 안식년을 맞아 미국에 돌아갔지만, 마냥 쉬지 않았다. 다양한 곳에서



당시 금산교회를 재현한 모형.

선교 보고뿐만 아니라 조선 선교를 알리는 일에 온 힘을 다했다. 1891년 내쉬빌 선교대회에서 그의 강연은 또 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다. 쉽지 않은 과정을 통과하고 마침내 1892년 조선으로 파송된 미국 남장로교 7인의 선발대 중 한 사람인 ‘테이트(Lewis Roy d Tate) 선교사’다.

테이트 선교사는 정열적인 활동가였다. 전라북도 전주를 중심으로 익산, 정읍, 태인, 남원 등 조선인 조사와 함께 전도여행을 하며 선교에 매진했다. 그는 다리를 약간 저는 장애를 가졌음에도 열성적인 사람이었다. 일을 보고 아니할 수 없는 성정을 지닌 사람이었다. 어떤 해에는 약 500개 마을을 방문해서 성경과 소책자 약 4천 권을 판매한 기록도

가지고 있다. 그는 단순히 복음을 선포하고 확장하는 일에만 매진하지 않았다. 올바르게 신앙이 세워지도록 엄격하게 검증하고 가르쳤다.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을 갖게 되어 세례를 청원하더라도 ‘진정한 열매’를 확인하기 전까지 문답하고 평가했다. 함부로 세례를 주지 않는 것으로 유명했다.

그의 사역 열매가 증거로 남아 있는 교회가 있다. 전라북도 김제시에 있는 ‘금산교회’다. 테이트 선교사의 전도 활동 덕분에 금산리 용화마을에서 예배가 시작되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헌신으로 예배당도 세워졌다. 예배당 모양 자체가 우리나라에 몇 개 남아 있지 않은 ‘ㄱ’자 교회다. 예배당 모양이 주는 특별함 때문에 이곳을 방문한다면 반만

보는 것이다. 이 교회가 품고 있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사람들에게 아름다움을 건네는 ‘조덕삼과 그 집안의 마부 이자익’의 이야기를 꼭 현장에서 확인해야 방문의 완성을 할 수 있다.

금산교회가 더욱 특별한 것은 오래된 교회 건물을 허물고 새로 짓지 않았기 때문이다. 본래 건물을 힘써 보존하고, 그 옆에 새로운 예배당을 세웠다. 옛 교회의 자취와 함께 오늘날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준다. 금산교회 목사님과 성도들의 헌신으로 이뤄진 일임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방문했으면 좋겠다.

“조선을 긍휼히 여겨달라”는 이수정의 호소가 언더우드 선교사에게 닿았고, 조선을 사랑하고 안타깝게 여겼던 언더우드의 마음이 테이트 선교사에게 전해졌다. 테이트 선교사의 전도 활동이 금산교회를 세웠고, 금산교회가 품고 있는 기독교 역사적 가치와 의미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 그 사랑은 끊임없이 이어진다. 이어지고 또 이어져 결국 열매를 맺는다. 신앙교육여행에서는 그 사랑의 발자취를 따라 걷는다. 8월에도 테이트 선교사로부터 계속 이어지는 사랑의 발자취를 소개하려 한다. 테이트 선교사의 사랑과 전도 활동이 또 다른 열매를 맺은 곳 ‘전라북도 전주시’를 소개할 예정이다.

기독교 OTT ‘풍당’ 추천 콘텐츠

창조 섭리 배우는 인체 탐험

<우리 몸으로, 풍당>
소화기관 어드벤처

과학 지식과 우리 몸속에 담긴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배우는 일거양득의 애니메이션이 있다.

기독교 OTT ‘풍당’이 지난 6월 21일 ‘<우리 몸으로, 풍당> 소화기관 어드벤처’편을 선보였다. 어린이를 위한 인체 탐험 애니메이션이다.

쌍둥이 남매 ‘찬이’와 ‘송이’가 소화기관으로 직접 들어가 탐험하는 이야기를 통해 인체 과학을 재미있게 풀어낸다. 찬이와 송이가 몸이 줄어드는 채로 비행선 ‘튜비’를 타고 인체 내부를 여행하는 설정이 매우 흥미롭다. 박사님이 등장해 침샘, 위, 대장, 항문 등으로 함께 이동하며 각 소화기관의 역할을 소개한다. 이 과정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에 따라 창조된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학습할 수 있다.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 모든 의학적 내용을 전문 의료진의 감수와 자문을 거쳤다. 애니메이션과 더불어 오는 11월에 동화책과 워크북을 발행해 효과적인 학습을 도울 예정이다. 2023년 하반기부터 성교육, 혈관, 심장, 호흡기관 편을 차례로 공개한다. 혈관 어드벤처 동화책은 두란노서점(서빙고, 양재, 송도)에서 구매할 수 있다. 도서 판매 수익금 전액 풍당 어린이 콘텐츠 제작에 사용한다.

오늘의 hymn(찬송가, 찬가)

상처를 덮는 상처

'그 손의 상처'
브라이언킴 작사, 작곡

모든 상처를 안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아 한다. 그 손의 상처, 못 박히신 손을 생각하면 예수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는 사랑, 채울 수 없던 마음을 예수님으로 채울 수 있다. 이 찬양을 듣다 보면 구원자 되신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겠다고 고백하게 된다. 이 찬양으로 상처 입은 마음과 두려운 마음을 위로받고 치유됐으면 좋겠다. ‘그 손의 상처’는 브라이언킴이 작사, 작곡했고, 전병주(작사)와 박세진(작곡)이 공동 작업했다. 브라이언킴의 앨범으로는 ‘너를 선택한다’, ‘주가 일하시네’ 등 다양한 찬양을 더 만날 수 있다. 찬양 ‘그 손의 상처’는 유튜브, 멜론, 지니, 벅스 같은 음악 사이트에서 들을 수 있다.



찬양 듣기

온누리와 함께하는
나부터 탄소중립!

탄소중립 생활 실천 ‘전기편’

1. 우리나라 전자기기 이용 현황

기술 발달과 생활 수준 향상으로 인해 가전기기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보급률도 높아지면서 생활 속 가전기기의 사용이 늘어나고 있다. 그만큼 생활 속 에너지 소비도 많아지고 있다.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탄소중립 생활 실천을 하기 위해서는 전력사용량을 줄이는 고효율 기기를 사용하고, 새어나가는 전력 소비를 막아야 한다. 제품선택과 사용 습관의 변화를 통해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다.

2. 실천 방안

- 컴퓨터절전프로그램(그린터치) 사용하기 CO₂ 저감량(연간): 17.7kg / 나무 식재 효과(연간) 3.8그루
- 사용 않는 가전제품의 플러그 뽑기 CO₂ 저감량(연간): 12.6kg / 나무 식재 효과(연간) 1.9그루
- 전기밥솥 보온시간 3시간 줄이기 CO₂ 저감량(연간): 25.9kg / 나무 식재 효과(연간) 3.9그루
- 세탁횟수 주 1회 줄이기 CO₂ 저감량(연간): 2.5kg / 나무 식재 효과(연간) 0.4그루



CGN이 교회학교 교사들의 헌신을 담은 특집다큐 '교회학교를 부탁해'를 방영한다.

CGN 다큐 '교회학교를 부탁해'

7월 2일 오전 10시 30분 방영

CGN이 특집 다큐 '교회학교를 부탁해'를 7월 2일(일) 오전 10시 30분 방영한다. 이 시대 교회학교의 현실을 집중 조명하면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아이들을 섬기는 교사들의 아름다운 헌신을 소개한다.

CGN 특집 다큐 '교회학교를 부

탁해'에는 실제 교회학교를 섬기는 교사들이 등장한다. 기피 대상 1순위인 중등부를 섬기는 한도경 선생님, 김진홍 선생님, 교회학교에서 만나 10년 동안 교제를 이어가는 강충구 선생님과 제자들, 19년째 유아부 교사로서 섬기는 곽영미 선생님 등이

출연한다. 한 줄의 말씀이 언젠가 아이들을 변화시킨다는 믿음으로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키는 선생님들의 모습이 큰 감동을 준다. 기록 OTT '풍당' 앱과 CGN 유튜브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다.

/ 김현준 기자 khj@onnuri.org

모리타니 어린이 건강검진 캠페인

NGO 더멋진세상이 '모리타니 어린이 건강검진 캠페인'을 했다. 지난 6월 16일(금)부터 18일(일)까지 아프리카 모리타니 엘미나시에 거주하는 어린이(6~59개월) 14,622명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했다. 현지 선교사, 보건 전문인력, 영양사업자 등 봉사자 70여 명이 참여했다.

이번 건강검진에서 영양실조 아동 231명(중등도 205명, 심각 26명)과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아동 273명을 발견했다. 예방접종 하지 않은

아동들에게는 7종류의 백신을 접종했다.

NGO 더멋진세상이 활동 중인 다르비다 보건소 반경 1km 이내에서는 영양실조 아동이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 이를 매우 높은 성과로 보고, 더 많은 영양실조 아동을 돌보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오는 9월에는 '어린이 영양지원 캠페인'을 통해 발견된 영양실조 아동 231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내적치유학교 참가자 모집

7월 21~23일 파주 솔 수양관

65기 내적치유학교 참가자를 모집한다. 3040 미혼 청년이 대상이다. 7월 21일(금)부터 23일(일)까지 파주 솔 수양관에서 열린다.

65기 내적치유학교에서는 '내적치유와 상처', '역기능 가정의 치유' 등을 주제로 이기원 목사, 최용준 목사, 정희성 목사, 오은규 목사가

강의한다. 참가신청은 7월 2일(일)까지 아이스쿨 홈페이지(schooli.onnuri.org)에서 하면 된다. 타고회 성도는 전화로 등록하면 된다. 회비는 16만 원(장소 대여, 교재, 간식, 강의 준비물 포함)이다. 성경책, 필기도구, 세면도구를 지참해야 한다.

문의: 010-6330-7634

말씀 해설, 기도제목 모집

온누리신문 '말씀과 기도' 지면에 게재할 말씀 해설 요청 및 기도제목을 모집한다. 말씀과 기도 지면은 성도들이 평소 궁금했던 말씀을 온누리교회 목회자들이 쉽고 재미있게 해석해주는 코너다. 성도들의 기도제목도 받는다. 말씀 해설 요청과

기도제목을 이메일(daa2@onnuri.org)이나 온누리신문 카카오톡채널로 보내면 그 내용을 게재한다. '이름, 소속, 공동체, 연락처'를 함께 보내야 한다. 기도제목 요청은 익명으로 도 참여할 수 있다.

문의: 02-6959-0001

예수님 친구 되는 방법 배운다!

2023 차세대 어드벤처 여름캠프

올해 여름 온누리교회 차세대는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방법'을 배운다. 2023 차세대 어드벤처 여름캠프가 '예수님 이야기: 나는 주의 친구'를 주제로 막 오른다.

예수님의꿈아이(이하 예꿈) 7월 초부터 7월 말까지 온누리교회 각 캠퍼스, 꿈이지라는땅(이하 꿈땅)과 파워웨이브는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외부 및 국내 온누리교회 각 캠퍼스에서 여름캠프를 한다. 예꿈에서는 '네네!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우와! 예수님이 도우셨어요', '아호! 예수님이 보내셨어요'를 주제

로 적용 놀이와 체험활동을 한다. 꿈땅에서는 '부르신 예수님', '도우신 예수님', '보내신 예수님'을 주제로 성경 퀴즈와 카드놀이를 한다. 파워웨이브 여름캠프는 '익투스'를 주제로 이어진다. 서빙고 파워웨이브는 미리내 내설악, 여주 중앙청 소년수련원, 동흥전교회, 충북 제천 청소년수련원에서, 양재 파워웨이브는 강화 성산청소년수련원, 단양 청소년수련원, 도곡 파워웨이브는 숲속의 아침, 동흥전교회에서 여름캠프를 한다.

/ 김다애 기자 daa2@onnuri.org

CCF 정기포럼 '복음과 한국 교회의 미래'

이재훈, 유기성 목사 메시지, CCF 회원 100명 참석

CCF(Christian CEO Forum) 정기포럼이 지난 6월 22일(목) 양재 온누리교회 화평홀에서 '복음과 한국 교회의 미래'를 주제로 열렸다. 크룩스 특순, 이재욱 회장(CCF) 환영 인사, 강신익 장로(OCC공동체) 기도, 이재훈 담임목사, 유기성 목사 메시지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이재훈 담임목사는 '세계 복음주의 흐름과 로잔 운동'을 주제로 메시지를 전했다. 이목사는 "로잔 운동은 복음주의 교회들의 세계 복음화 운동"이라며 "내년 한국에서 개최되는 제4차 로잔대회를 계기로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고, 세계 복음화 비전을 위한 실천이 계속 이어지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유기성 목사(선한목자교회 원로, WJM 이사장)는 "한국 교회가 제4차 로잔대회를 온전히 섬겨야 한다"면서 "더 많은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기도, 재정, 봉사 등으로 섬겨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7월 화요성령집회 'Countdown'

매주 화 오후 7시 30분 서빙고 분당

대학청년부 7월 화요성령집회 'Countdown'이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서빙고온누리교회 분당에서 열린다. 온누리교회 대학청년부 유튜브 채널에서도 참여할 수 있다.

7월 화요성령집회 'Countdown'에서는 4일 감재석 목사 '예배, 하

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11일 최성민 목사 '선교, 열방을 향한 부르심' (행 20:17~24), 18일 최성민 목사 '부흥, 하나님의 열정' (사 9:1~7), 24일 최대홍 목사 '회복, 이 땅을 고치소서' (속 8:1~8)를 주제로 메시지를 전한다.

두란노아버지학교 참가자 모집

7월 29일~8월 26일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두란노아버지학교 본부 169기 참가자를 모집한다. 7월 29일부터 8월 26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두란노아버지학교는 아버지가 가정에서 바로 서고, 사회를 바꾸고, 세상을 변화시키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아버지의 영향력', '아버

지의 남성', '아버지의 사명', '아버지의 영성', '아버지와 가정'을 주제로 5주 동안 강의를 이어진다. 참가신청은 두란노아버지학교 홈페이지(father.or.kr)나 아이스쿨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12만 원.

문의: 010-2657-1875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은혜!

송병민 집사 부부의 아름답고 귀한 헌신



송병민 집사
(강남B공동체, 야탑
터미널튼튼의원
원장)

2022년 여름, 온누리교회 선한울타리사역을 통해서 주영광교회를 알게 되었다. 처음에는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도와주는 교회겠거니 생각했다. 그런데 임귀복 목사님(주영광교회)과 자주 만나고 소통하면서 주영광교회

에 대해 조금씩, 더 깊이 알게 되었다.

주영광교회 아이들에게 임귀복 목사님은 엄마였다. 탕수육, 짜장면, 사브사브를 사달라고 조르는 아이, 목사님이 운전할 때 “핸드폰 보지 마시라”고 잔소리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영락없이 내가 어릴 적 엄마한테 하던, 나의 두 딸이 엄마에게 하는 말투와 표정, 행동이었다.

임귀복 목사님이 아이들을 교육할 적절한 성경공부 교재를 찾고 계셨다. 나와 아내가 코로나19 팬데믹 때 오병이어선교회 대표님과 1년 동안 온라인 성경공부를 했던 일이 떠올랐다. 정말 좋은 시간이라서 임귀복 목사님께도 그때 들었던 유튜브 강의와 책을 소개해드렸다. 임귀복 목사님은 “송 원장님께서 직접 해주세요”라고 하셨다. 그렇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16주 동안의 성경공부가 시작되었다.

나는 원래 시키면 열심히 하는 성격이라 매주 주일 오후 주영광교회를 찾아갔다. 내 교회처럼 드나들었다. 주영광교회를 들락거리며 아이들의 실상을 보게 되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그 실상을 보게 하시려고 신학을 전공한 것도 아니고, 안수집사도 아닌 내게 그 일을 시키셨던 것 같다.

16주 동안 성경공부가 끝나고 종강파티를 했다. 한겨울 부원장 자리에 공석이 생겨서 병원 일이 무척 바빠질 예정이었기에 이제는 선한울타리 멤버로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했다. 개인적으로 찾아뵙는 일이 어려울 거라 생각했다. 선한울타리사역팀과 같이 와야겠다고 생각하며 종강파티를 했다. 그런데 종강파티 이틀 뒤 한 아이의 자살소동이 있었다. 종강파티 때 밤을 쫓아 놓고 먹던 그 아이의 모습이 눈에 아른거렸다. 이대 목동병원에서 아이가 위세척하는 동안 임귀복 목사님이 응급실 앞에서 영영 우셨다. 임귀복 목사님은 “그날 그 아이의 얼굴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다”고 하셨다.

위기 청소년을 위한 무료급식소 화곡동 만나하우스가 개관하기까지

일련의 일들을 겪으며 그동안 임귀복 목사님이 하시던 ‘무료급식소사역’이 떠올랐다. 무료급식소사역의 필요성이 크게 와닿았다. 그래서 병원 일 때문에 정신없는 와중에도 인터넷으로 부동산 매물들을 검색하기 시작했다.



‘만나하우스’를 섬기는 송병민, 홍주화 집사 부부(위), ‘만나하우스’ 개관 예배(아래).

처음 인터넷 사이트에 매물을 검색할 때는 가격을 3억 원 이하로 설정해놓았다. 3억까지가 심리적 마지노선이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그 이상의 금액은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었다.

틈날 때마다 매물을 검색하고 보러 다녔지만, 적당한 매물을 찾는 게 쉽지 않았다. 어떤 물건은 출입구가 따로 없어서 안 되고, 어떤 물건은 평수가 너무 작았다. 또 다른 물건은 식당을 하기에 너무 낮았다. 무료급식소사역을 하기에 더 좋은 건물을 찾기 위해 틈틈이 기도하며, 매물을 검색하고, 건물을 보러 다녔다.

사실 5호선 화곡역 역세권에 4억5천만 원짜리 지하상가가 있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처음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과한 도전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자주 그 매물이 떠올랐다. 그 건물을 두고 일주일 정도 고민을 거듭했던 것 같다. 아내와 함께 기도하고 상의하며 “4억5천만 원이라도 계약하자”고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12월 31일 아침 임귀복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다.

“목사님, 저희는 4억5천만 원이라도 계약할 것입니다. 이따 오후에 뵙겠습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인데 우리 전화를 받고 목사님이 울며 기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강한 확신을 주셨다고 한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셨던 것처럼 아내와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미 받으셨

다는 마음이 들었다고 한다. ‘화곡동 급식소가 이제 정말 시작되는구나’ 확신이 드셨다고 한다.

임장(부동산을 사려고 할 때 직접 해당 지역에 가서 탐방하는 일)하는 날 정말 큰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이 모든 순간을 계획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을 경험했다. 주영광교회 사역과 무료급식소사역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신 부동산 사장님께서 “본인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셨다. 그 자리에서 임귀복 목사님과 우리 부부, 그리고 부동산 사장님이 손을 잡고 기도회를 했다. 부동산을 보러 와서 기도회 하기는 처음이었다.

계약 과정도 하나님의 은혜로 순조로웠다. 매도인인 건설사는 몇 년째 미분양 공실로 남아있는 상가를 빨리 처분하고 싶었고, 부동산 사장님은 우리 편이었기에 매매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보통 부동산을 살 때 공시지가의 130% 이내에 구매하면 매우 훌륭하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는 공시지가의 50%도 안 되는 가격으로 건물을 가져올 수 있었다. 부동산 거래를 몇 번 해봤지만 이렇게 순조롭게, 그리고 손해 보지 않는 거래는 처음이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끼며 많이 울었다.

우리 부부는 오병이어선교회 소속이다. 오병이어선교회는 선교사님들이나 간사님들이 주로 영양사다.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등 ‘Yellow Window’ (빈곤, 기아, 재해로 고통받는

지구촌 이웃들의 땅) 내에 있는 영양 결핍 아동들을 먹이는 사역을 한다. 탄자니아 생명의 빵 사업, 캄보디아 식수 개선 사업, 몽골 학교 급식 사업 등 오병이어의 기적을 수도 없이 봐왔기에 이번 무료급식소사역을 시작할 때도 겁이 없었던 것 같다. 겁이 없었기에 화곡동 ‘만나하우스’를 추진할 수 있었다.

건물 소유권을 넘겨받고 위키코리아에 무상 임대차를 주기 시작하면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 같았다. 그러나 3개월이 지나도록 인테리어를 시작조차 하지 못하는 긴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다. 인테리어 견적을 여러 업체에서 받아 봤는데 금액이 부족했다. 인테리어는 막상 시작하면 이것저것 추가돼서 처음 견적을 훌쩍 뛰어넘기 마련이었기에 쉽게 업체를 선정할 수 없었다.

우리는 또 하나님께 나아갔다. 임귀복 목사님과 함께 머리를 짜내고 고민하고 기도했다. 그리고 임귀복 목사님의 친척에게 인테리어를 저렴하게 의뢰하기로 했다. 임귀복 목사님 남편이신 장로님께서 일을 총괄해주시고,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주영광교회 아이들이 직접 일하기로 했다. 나는 ‘어떻게든 돈만 모이면 할 수 있다. 모금하자!’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들의 헌신과 수고였다. 하나님은 이 일의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로 진행하기를 원하셨다.

긴긴 기다림 끝에 박승주 장로님(브러쉬뱅크)의 후원으로 인테리어를 시작할 수 있었다. 말로 다 전할 수 없는 감동의 공사 현장이었다. 주영광교회의 석호, 상욱 형제는 모래와 공사자재를 나르느라 온 힘을 다 썼다. 위키코리아 간사님 두 분은 본인들의 한 달 월급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 드라마 ‘올인’에서는 주인공이 본인의 돈을 벌려고 올인했는데, 이분들은 하나님께 올인하셨다. 그 섬김과 헌신을 보며 큰 감동을 받았다.

이 외에도 정말 많은 사람의 관심과 기도, 후원이 있었다. 까치산역에서 아이들에게 복싱을 가르쳐 주시는 관장님을 중심으로 모이는 ‘착하게 살자’ 모임에서도 후원을 해주셨다. 그 멤버 중에는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인 친구도 있었다. 수많은 ‘무’씨 성을 가진 분들의 후원도 있었다. 그분들의 이름은 ‘무명’이다. 대한민국에 무씨 성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많은지 처음 알았다. 웃자고 하는 말이었지만, 정말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으며 큰 감동을 받았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자신의 것을 나눠주시는 분들을 보며 큰 사랑을 경험했다.

만나하우스 개관은 어느 한 사람의 노력이 아닌 여러 사람의 헌신과 수고의 결과다. 처음부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한다. 부족한 나를 써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만나하우스는 새로운 시작이다. 남과 북이 통일되어 평양과 신의주에 세워질 수많은 급식소의 첫 발걸음이 될 거라 믿는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 드린다.

장로칼럼

축복의 노래

김해기 장로
(한강공동체)

‘2023 장로수련회’가 지난 6월 9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됐다. 이재훈 담임목사님을 모시고 많은 장로님들과 본부장 목사님 등 총 255명이 참석했다. 열방과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고, 장로님들 간 축복이 넘쳤다. 은혜가 풍성한 수련회였다.

지난 1월 중순 홍성호 당회서기 장로님으로부터 2023년 장로수련회 준비위원장을 맡아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너무 큰 부담이었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맡기로 했다. 2월부터 본격적으로 준비위원 장로님들과 매주 모여 머리를 맞대고 장로수련회 준비를 시작했다. 준비위원 모두가 비장한 마음을 가지고 준비에 임했다.

장로수련회 준비단계에서 담임목사님께 진행 방향에 대한 조언을 부탁했다. 나는 내심 장로님들의 수련회이므로 온누리교회의 비전이나 한국 교회에서 온누리교회의 역할 등 묵직한 주제를 말씀해 주시리라 생각했다. 그러나 목사님께서 의외의 답을 주셨다.

“수련회 와서 장로님들이 무거운 주제의 토의를 하는 대신 지난 3년 동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하지 못했던 교제를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장로님들의 교제가 부족했고, 특히 캠퍼스 간 교류 부족은 물론이고, 지난 3년 동안 장립 받은 장로님들과의 화합 시간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서로 교제와 화합의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 방향에 맞춰 프로그램을 편성하기로 했다. 우선 장로수련회 주제는 2023년 온누리교회 표어인 ‘길 진리 생명’으로 정했다. 부제는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을 기초로 ‘축복의

노래’로 정했다. 우리가 길, 진리,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난 것은 축복이다. 우리가 받은 축복을 노래하고, 가까이는 제4차 로잔대회를 통해서 열방을 축복하기를 소망했다. 무엇보다 수련회를 통해서 장로님들이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화합하고, 서로를 축복하고, 예수님의 크신 사랑으로 다음세대를 품고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2023 장로수련회 첫 강의는 열방을 향한 축복의 시간이었다. 담임목사님의 ‘세계 복음주의 흐름과 로잔운동’이라는 주제의 강의를 통해서 복음주의의 개념 정립과 로잔운동의 의미를 새롭게 할 수 있었다. 두 번째 강의는 다음세대를 향한 축복 시간이었다. 데이비드 전 대표가 ‘AI, 미래사회 and Church’를 주제로 강의했다. AI시대의 환경적 특성과 교회의 역할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마지막으로 장로님들의 화합과 교제를 위해서 조별 나눔 시간을 가졌다. 서로를 깊게 알아가는 시간이었다. 더 나아가 같은 조에서 장로님 두 사람씩 짝을 지어 영적 네트워크를 형성해 줌으로 더욱 심도 있는 영적 동반자 관계를 형성했다.

이 모든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었던 이유는 준비위원 장로님들의 열정과 헌신 덕분이었다. 기획분과에서는 문제해결을 위해 끊임없이 아이디어를 도출했고, 실행분과에서는 동원, 안내, 차량 관리, 숙소 배정 등 실제 몸으로 열심히 뛰었다. 미디어분과에서는 행사 전 날 늦은 시간까지 영상과 음향 조절을 위해서 땀을 흘리며 어려움을 헤쳐나갔다.

이번 장로수련회를 통해서 온누리교회 리더십들이 복음주의를 기반으로 한 올바른 믿음의 정체성을 확립하게 되었다. 더 나아가 내년 제4차 로잔대회의 의미를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또한 AI시대에 접어들며 점점 줄어들고 있는 차세대를 위해서 교회와 리더십들이 어떻게 다음세대를 이해하고 준비해야 하는지를 확인하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권사칼럼

빠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박인숙 권사
(신용산공동체)

“지금은 남의 땅, 빠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나는 온몸에 햇살을 받고 푸른 하늘 푸른 들이 맞닿은 곳으로 가르마 같은 논길을 따라 꿈속을 가듯 걸어만 간다.”

일제강점기에 이상화 시인이 우리의 국토와 주권을 빠앗긴 아픔을 노래한 시의 앞부분이다. 봄이라는 좋은 때가 왔으니 빠앗긴 들도 다시 찾아야 한다는 간절한 희망을 담은 외침이다. 나는 이 시에 나오는 가르마 같은 논길이 있는 수성 들판에서 때뭇기를 잡으며 어린 시절을 보냈다. 그때는 그의 아픔을 잘 몰랐다.

나라를 빠앗겨 애통했던 선조들의 아픔을 이제야 어렵듯이 느낀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우리의 일상이 많이 달라졌다. 특히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모든 세대가 스마트폰이나 미디어에 폭 빠졌다. 빠앗긴 들이 아니라 사람들이 시간을 온통 빠앗기고 있다. 디지털 시간 도둑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잊게 만든다.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 유튜브에 올라온 몰아보거나 요약본 영상을 2배속으로 빠르게 본다. 끊임없이 분주함에 쫓기고 있어 불안해하며 허무함을 느낀다. 시간을 빠앗긴 줄도 모르고 시간이 없다고 말한다.

성경에서 “세월을 아까라 때가 악하니라”(엡 5:16)고 했다. 사탄이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시간을 빠앗아 가기에 시간을 구출하라는 뜻이다. 사탄은 “시간의 주인은 너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돼”라고 속삭이며 우리를 부추긴다. 시간이 순식간에 사라졌다는 뜻으로 ‘시간순삭’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겼다. 요즘 시간순삭하게 만드는 게임, 책,

드라마 등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난다고 한다. 시간은 생명이다. 시간순삭이라는 말이 ‘생명 삭제’라고 들려 마음이 섬뜩하다.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시간을 관리하도록 우리를 청지기로 부르셨다. 시간의 노예가 아니라 맡긴 시간을 충성되게 살아내는 것이다. 첫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하는 우선순위가 중요하다. 중요한 것을 먼저 하지 않으면 바쁘고, 급한 일이 끼어들기도 하고, 재미있고 자극적인 것에 몰두하게 된다. 시간 속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정체성과 사명을 잃는다. 흘러가는 대로 사는 ‘크로노스 시간’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카이로스 시간’으로 바꾸자. 시간 속에 종말이 있음을 기억하자. 시간을 영원에 접속하지 않으면 헛되이 시간을 죽인다. 지금은 은혜의 때며 구원의 날이다. 지금 내게 주어진 기회를 붙잡자. 영원으로 이어지는 오늘을 살며 생명을 구하는 청지기가 되자.

성경에 등장하는 혈루병을 앓는 여인이 군중 속을 뚫고 예수님께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소문을 누군가에게 들었기 때문이다. 한 백부장이 그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어갈 때 예수님께 나아와 간청했다. 역시 누군가 백부장에게 예수의 소식을 전해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롬 10:14).

이 말씀을 기억하자.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는 그 누군가가 바로 ‘나’일 때 우리는 허무하거나 지루하지 않고,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 봄이 와서 봄바람이 부는 것이 아니라 봄바람이 불어서 봄이 온다. 지금 성령의 바람이 불고 있다. 빠앗긴 생명을 찾는 절호의 기회다.

신앙에세이

러시아어예배공동체 창립 20주년

유세르게이 목사
(안산M센터)

지난 6월 18일, 안산M센터 러시아어예배공동체가 창립 20주년을 맞이했다. 김창욱 전도사님을 비롯해 온누리교회 모든 러시아어권 공동체 사역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러시아어예배 창립 20주년 감사예배를 드렸다.

노규석 목사님(온누리M센터) 축사로 시작된 감사예배는 은혜도 볼거리도 가득했다. 성도들이 연극, 찬양, 시 낭독 등의 공연도 했다. 성도들을 위해 포토존을 마련하고, 예배당도 예쁘게 장식했다.

온누리교회 러시아어예배의 시작은 한 고려인의 세례에서 비롯됐다. 1990년대 말, 카자흐

스탄에서 온 한 고려인 여성이 온누리교회에 새벽예배를 드리러 온 적이 있었다. 그분은 카자흐스탄에서 한국 물건을 팔았던 상인이었다. 자주 한국에 왔었다. 그분이 한국 교회에서 세례를 받기로 하고, 새벽기도회가 끝나고 하용조 목사님께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카자흐스탄으로 돌아갔다.

그 이후 1998년 말 즈음 온누리교회에서 러시아어 기도모임이 열렸다. 외국어대학교 러시아어과를 졸업한 이준 전도사가 기도모임을 인도했다. 그는 온누리교회에서 러시아어예배를 드리기를 간절히 원했다고 한다. 당시 나는 신학교 학생이었는데 토요일이면 러시아어 기도모임에 참석하려고 온누리교회에 자주 왔었다. 성도 약 20~25명 정도가 모였다. 그러다 2001년 서빙고온누리교회에 러시아어예배공동체가 생겼다. 2003년에는 안산으로 사역자를 파송해 새로운 공동체를 시작했다. 그렇게

러시아어예배가 시작됐다.

안산M센터 러시아어예배공동체의 역사는 형성기(2003~2015년), 과도기(2015~2022년), 선교를 향한 공동체 단계(2023년 이후)로 구분할 수 있다. 러시아어예배 초기 안산에는 중앙아시아와 연해주에서 온 젊은이들이 많았다. 그들은 모두 한국에 돈을 벌기 위해 온 이들이었다. 과도기에는 러시아어권 사람들의 한국 정착 시도, 전염병(메르스, 사스, 코로나19) 등의 특징이었다. 선교를 향한 공동체 단계에서는 다음 단계를 기대하고 있다. 공동체에서 세워진 리더, 자체 영성 프로그램, 행사 계획 및 추진력 등을 할 것이다. 러시아어권 공동체들의 선교 활동에도 관심이 많다.

러시아어예배공동체는 선교적 희망을 품고 있다. 올해부터 안산M센터 러시아어예배는 유알렉세이 목사, 서빙고 러시아어예배는 이아르투르 목사, 김포M센터 러시아어예배는 전디

미트리 전도사가 맡고 있다. 러시아 연해주에서는 김알렉산더 목사가 OGP(Onnuri Global Partners)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다. 올해 그루지아에 단기선교팀이 다녀왔고, 러시아어권 연합 리더십 세미나와 연합 어린이캠프도 했다. 온누리M센터 노규석 목사님과 2000선교본부의 지원이 없었다면 불가능했다.

현재 한국에 있는 러시아어권 인구가 20만 명이 넘는다. 올해부터 한국 곳곳에 러시아어예배 공동체를 많이 세우고, 구소련 국가에 단기선교와 역파송 선교사들을 보내고 싶다. 목회자와 선교사를 훈련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지난 20년 하나님이 온누리교회 러시아어예배공동체를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셨다. 그러나 아직 해야 할 일이 많다. 온누리M센터 사역에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하고 싶다. 온누리교회 러시아어권 공동체들을 위해 계속 기도해주기를 당부한다.

안전하게 여름 나기

여름철 식중독과 감염병 예방 방법

식중독 예방하려면?

1. 식중독의 증상

구토, 설사, 복통 등이 있다. 원인으로는 유해한 미생물(세균, 바이러스)과 동식물(곰팡이, 독버섯, 복어), 유해물질(조리기구, 포장)에 의한 식중독이 있다.

2. 식중독 예방 수칙

① 손씻기: 손은 30초 이상 세정제(비누 등)를 사용해 손가락, 손등까지 깨끗이 씻고 흐르는 물로 헹구어야 한다.

② 익혀먹기: 음식물은 속까지 충분히 익혀서 먹기(육류 75도, 어패류 85도 이상), 1분 이상 익히기.

③ 끓여먹기: 물은 끓여서 마셔야 한다.

④ 구분 사용: 날음식과 조리음식 구분, 칼과 도마 구분 사용.

⑤ 세척소독하기: 식재료 조리기구는 깨끗이 소독 세척하여야 함.

⑥ 보관온도 지키기: 냉장(5도 이하), 냉동(영하 18도 이하).

3. 휴가철 식중독 예방 요령

① 모든 음식은 한 번에 먹을 수 있는 분량만 만들거나 구입하여 사용할 것.

② 유통기한이 경과하였거나 불확실한 식품, 상온에 일정 기간 방치하여 부패·변질이 우려되는 음식은 과감히 버릴 것.

③ 여행지에서 직접 취식하는 경우 항상 신선한 식재료를 구입하고, 물은 끓이거나 정수된 것을 사용할 것.

④ 노로바이러스는 사람 간 2차 감염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오염된 표면은 염소계 소독제로 철저히 세척·소독하고 바이러스에 감염된 옷과 이불 등은 비누를 사용하여 뜨거운 물로 세탁해야 할 것.

⑤ 식사 전, 조리 시 반드시 손을 씻을 것.

⑥ 음식보관은 반드시 아이스 박스 등을 이용하여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섭취할 것.

⑦ 길거리 음식이나 위생 취약 시설 음식 섭취 자제할 것.

⑧ 산이나 들에서 버섯이나 과일 등을 함부로 따먹지 말 것.

⑨ 어린이, 노약자 등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은 설사 증상이 있을 경우 탈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끓인 보리차에 설탕과 소금을 조금 넣어 마시게 할 것.

⑩ 냉장고에 오래 보관할 수 없는 음식이나 유통기한이 임박한 식품은 모두 버릴 것

⑪ 주방의 칼, 도마, 행주 등은 열탕 소독하거나, 세척·소독제를 이용하여 소독한 후 잘 말려서 사용할 것.

⑫ 해외 아웃리치 준비사항: 가급적 물은 사먹고, 물티슈와 손소독제 등을 준비할 것.

⑬ 조심해야 할 대표적 음식: 생선회, 조개, 햄, 치즈, 소시지, 김밥.

4. 식중독 발생했을 때 주의사항

① 구토, 설사, 복통 등의 식중독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또한 가까운 보건소로 신고한다.

② 병원 도착 때까지 시간이 걸릴 경우 설사환자는 탈수 방지를 위해 충분한 수분을 섭취토록 한다.

③ 구토가 심한 환자는 옆으로 눕혀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주의하며, 노약자나 어린이의 경우에는 구토물에 의하여 기도가 막힐 수 있으므로 관찰과 주의가 필요하다.

④ 지사제 등 설사약은 함부로 복용하지 말고, 반드시 의사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⑤ 지사제는 설사를 통하여 자연적으로 몸 밖으로 배출되는 세균이나 세균성 독소 등의 배출을 막아 몸 속에 쌓이게 하여 더 심각한 증상을 초래할 수도 있다.

⑥ 환자 구토물 처리 때는 반드시 일회용 장갑 등을 사용하여 닦아내어 비닐봉지에 넣어야 하며, 가능하면 가정용 락스 등으로 소독해 2차 감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⑦ 보건소에 협조해야 한다(채변, 도마, 칼, 행주 등 환경검체수거, 식자재 구입자료 등 확보 제시).

여름철의 주요 감염병을 예방하려면?

여름철 주된 감염병으로는 비브리오패혈증, 유행성결막염, 일본뇌염, 말라리아, 레지오넬라, 수두, 유행성 이하선염, 콜레라 등이 있으며, 이 질병들은 병원체(세균, 바이러스), 식수, 곤충, 사람의 접촉 등의 매개물을 통하여 사람에게 전염되는 질환을 말한다.

1. 비브리오패혈증

비브리오패혈증은 비브리오패혈증균(vibrio vulnificus) 감염에 의한 급성 패혈증이며, 주로 해산물을 날로 먹거나 덜 익혀 먹었을 경우에 감염되며, 상처 난 피부가 오염된 바닷물에 접촉할 때 감염된다고 한다. 피부 병변은 주로 하지에서 시작하는데 병변의 모양은 발진, 부종으로 시작하여 수포, 또는 출혈성 수포를 형성한 후 점차 범위가 확대되면서 괴사성 병변으로 진행된다. 특히 간 질환환자(만성간염, 간경화, 간암)와 알코올 중독자, 면역저하환자 등은 더욱 주의.

비브리오패혈증 예방 수칙

① 어패류 충분히 익혀 먹기.

② 피부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오염된 바닷물과 접촉을 피하고 바닷물에 접촉 시 깨끗한 물과 비누로 노출 부위 씻기.

③ 어패류 조리 시 5도 이하로 저온보관하고 85도 이상 가열 처리하기(해수사용금지).

④ 어패류를 다룰 때 장갑을 착용하고, 요리한 도마, 칼 등은 반드시 소독 후 사용.

2. 유행성결막염

유행성결막염은 아데노바이러스가 원인

으로 전염성이 높은 바이러스 결막염이다. 일반적으로 사람 간의 접촉에 의해서 전파되며, 발병 후 약 2주간은 전염력이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증상으로는 이물감, 눈물, 눈곱, 양 눈의 출혈, 눈꺼풀 부종, 동통, 눈부심 등이 2주 이상 지속된다고 하며, 발병 후 2주(1주~6주)내에 증상이 없어진다. 매년 가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 유치원에 가는 어린이 환자는 완치 때까지 자가격리가 권장되며, 학교, 직장 등 단체생활을 하는 시설에서는 지속적인 주의와 개인위생을 철저히 해야 한다.

유행성결막염 감염예방 수칙

① 올바른 손씻기 생활화: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② 눈을 만지거나 비비지 않기.

③ 수건이나 베개, 담요, 안약, 화장품 등 개인 소지품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지 않기.

④ 증상이 있는 동안 수영장 및 목욕탕 등을 방문하지 않기.

3. 일본뇌염

일본뇌염은 일본뇌염 바이러스에 의한 작은 빨간집 모기에 물리면 감염된다. 주로 야간에 동물과 사람을 흡혈하는 Cuex속의 모기에 의해 전파된다. 일본뇌염은 아시아 지역 소아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뇌염으로 매년 3~5만명이 감염되며, 뇌염으로 진행된 경우 약 30%의 사망률과 회복되어도 1/3에서 신경계합병증이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일본뇌염에 감염되면 특별한 치료방법이 없으므로 예방이 최선이다.

일본뇌염 예방 수칙

① 사람 간 전파 없고 잠복기는 7~14일.

② 증상: 고열(39~40도), 두통, 현기증, 구토, 복통, 지각이상, 의식장애, 격련, 혼수.

③ 모든 일본뇌염 매개모기(작은빨간집 모기)가 일본뇌염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 일본뇌염 바이러스를 가진 모기에 물렸을 경우 극히 일부에서 발생한다.

④ 모기를 매개로 하는 질환으로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

⑤ 예방접종: 권장 접종 시기에 맞춰 연중 어느 때나 접종 받도록 권고하고 있다.

⑥ 백신의 종류는 불활성화 백신과 약독화 백신이 있으며, 면역저하자 등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의사와 상담 하에 두 종류 백신 중 선택하여 접종하면 된다.

4. 말라리아

말라리아(Malaria) 또는 학질은 모기가 옮기는 감염병으로, 매년 2억에서 3억 명이 감염되고 수백만 명이 사망하는 질병이다. 주로 열대지방에서 발병한다.

초기 징후들은 독감 증상들, 열증, 위장염

이 있고, 시간이 지나면 두통, 열, 몸서림, 관절 통증, 구토, 용혈성 빈혈, 황달, 소변에서의 헤모글로빈, 망막 손상, 경련이 나타난다.

말라리아 예방 수칙

① 국내에서는 모기가 활발하게 활동하는 4월부터 10월까지, 야간(일몰 직후부터 일출 직전)에는 야외 활동을 가능한 자제.

② 야간 외출 시에는 긴 소매, 긴 바지를 착용하고, 얼굴 주변을 피해 모기 기피제를 뿌려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개인 예방법 실천.

③ 옥내의 모기 침입 예방을 위해 방충망의 정비 및 모기장 사용을 권고하고, 실내 살충제를 적절히 사용할 것.

④ 말라리아 위험지역에 거주하거나 여행, 군 복무 후 발열, 오한, 두통의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것.

⑤ 말라리아 경보발령지역 거주자는 관내 보건소에서 무료로 신속진단키트 검사 및 예방약을 복용할 것.

⑥ 말라리아 유행 지역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입국 2주 전부터 출국 후 4주까지 예방약을 계속 복용해야 한다. 단, 항 말라리아 약제 중 아토바쿠온과 프로구아닐은 예외적으로 입국 2일 전부터 복용을 시작하고 출국 후 7일까지만 복용하면 된다. 아직 말라리아에 대한 백신은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4. 레지오넬라(Legionellosis)

레지오넬라균 레지오넬라균속(Legionella spp.)에 의한 감염증을 말한다. 대형건물의 냉각탑 수, 에어컨디셔너, 샤워기, 증중 호흡 치료기기, 수도꼭지, 장식분수, 분무기 등의 오염된 물(냉각탑 수 등)속의 균이 비말 형태로 인체에 흡입되어 전파된다.

4-1. 폰티악 열 증상

잠복기: 5시간~65시간, 평균 36시간.

2일~5일간 지속되는 급성 질환으로 권태감, 근육통 등의 증상으로 시작하여 갑자기 발열 및 오한이 동반되고 마른기침, 콧물, 인두통, 설사, 오심, 어지러움 등을 보임.

4-2. 레지오넬라 폐렴 증상

잠복기: 2~10일. 만성폐질환자, 흡연자, 면역저하환자에서 호발함. 발열, 오한, 마른기침이나 소량의 가래를 동반하는 기침, 근육통, 두통, 전신 쇠약감, 식욕부진, 위장관 증상, 의식장애 등을 보임.

예방수칙

① 지역사회 획득성 폐렴: 냉각탑 청소 및 소독(연 2~4회).

② 병원 내 레지오넬라증 예방: 호흡기에 사용되는 기구나 물은 소독하여 사용하고 온수 탱크, 배관시설 등 원내 환경 수를 주기적으로 검사 및 관리.

③ 신고: 지체 없이 보건소에 신고

/ 온누리교회 안전관리위원회

서빙고 02.793.9686**토요일예배**

1부 오전 9:00 분당 2부 오전 11:00 분당
3부 오후 1:00 분당 4부 오후 3:00 분당

일요일예배

1부 오전 6:50 분당
2부 오전 9:00 분당, 비전홀
3부 오전 11:30 분당, 비전홀, 두란노홀
4부 오후 1:50 분당, 비전홀
5부 오후 4:00시 비전홀
6부 (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시 분당

새벽기도회

매주 월~금 오전 6:00 분당

월요 어노인팅집회

매주 월요일 오후 7:20 비전홀

화요일Holy Impact 집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분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분당

수요목양예배

매주 목요일 오후 7:30 분당

목요일경배와찬양

매주 목요일 오후 6:30 분당

목요일열방예배

매주 목요일 오후 7:20 두란노홀

금요일회복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7:20 분당

금요일심야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9:50 분당

한마음정신회복예배

매주일 오전 11:20 선교관 101호

담당: 오은규 목사

문의: 정성민 전도사(010-9496-7051)

S브릿지 예배

내용: 만33~44세 미혼 청년예배

주일 오후 1:30 두란노홀

문의: 김우용 대표(010-5395-2319)

장애인 공동체 누리사랑부예배

매 주일 오전 11: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김중수 팀장(010-7303-1603)

아베스맘예배(사별자모임)

비대면모임: 매주 화요일 오후 7:30-8:30(Zoom)

대면모임: 매주 토 오전 11:00~오후 2:00

문의: 박윤애 팀장(010-2771-0073)

문화 미디어 중보기도예배

매주 화요일 오후 8:00~9:30 콘서트를

문의: 전도본부(02-3215-3214)

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청소년

시간: 매주일 오전 9: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김종영 목사(010-2890-1707)

예수사랑부예배(발달장애 청장년공동체)

매 주일 오전 11:30 서빙고 한동홀

문의: 김현식 팀장(010-3597-7152)

일본어예배

매 주일 오후 2:00 선교관 한동홀

문의: 김상호(010-9349-5631)

일본어예배 수요기도회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선교관 302호

영어예배

매 주일 오후 4:00 경찬홀

문의: 02-3215-3685

중국어예배

매 주일 13:40 경찬홀

문의: 02-3215-3707

온누리M미션 외국어예배

서빙고(02-3215-3730)

몽골어 14:00 선교관 101호 / 러시아어

13:00 선교관 301호 / 네팔어 주일 14:00 선

교관 202호, 매일 첫주 군포 셀터 / 아랍어

주일 14:00 본관 B102호, 매 첫주 선교관

202호 / 페르시아어 주일 11:00 Acts29

Hall

안산M센터(031-491-9650)

몽골어 주일 10:30 Joy 201 / 러시아어 주일

10:00 Onnuri Hall / 네팔어 주일 10:00

Peace 303 / 캄보디아어 주일 11:00 Peace

302 / 미얀마어 주일 10:30 Joy 202 / 필리

핀, 파갈록어 주일 13:30 Onnuri Hall / 태

국어 주일 14:00 Manna hall / 스리랑카어

주일 11:00 Peace 304 / 베트남어 주일 예

배 11:00 Peace 301 / 중국어 청년 주일

12:30 Manna hall, 다문화 꿈방 주일 11:00

Startree / 다문화 과워웨이브 주일 11:00

Peace 305 / 다문화 애꿈 주일 11:00, 14:00

Dream Kids / 인도네시아어 주일 16:00 스

타트리협동조합 / 우즈베크스탄어 주일

14:00 Peace 304 / 아랍어 11:00 Library /

열방예배 9:00, 11:00 4F Manna hall

김포M센터(031-8048-9446)

캄보디아어 11:00 703호 / 미얀마어 11:00

706호 / 차세대꿈방 11:00 705호 / 러시아

어 14:00 703호 / 몽골어 19:00 706호

화성M센터(070-8671-8091)

열방예배 주일 11:00 301호 / 네팔어 11:00

2센터 202호

평택M센터(031-651-1702)

열방예배 13:30 4층 OGA / 몽골어 주일

11:00 Love Hall / 페르시아어 15:00 Love

Hall / 베트남어 13:30 4층 OGA 차세대

11:00 차세대예배실 / 열방청년예배 13:30

4층 OGA

남양주M센터(010-3937-3927)

열방예배(영어) 주일 11:00 301호 / 캄보디

아어 주일 11:00 304호 / 힌디어 토요일

20:00 301호 / 네팔어 토요일 20:00 304호 /

차세대 주일 14:00 309호

DRS 이혼자 정가예배

일시: 매주 토 오후 4시 / 신관 누리홀

문의: 김재영 팀장(010-2539-5665)

나지원 총무(010-3489-2080)

차세대사역본부 수요어머니기도회

일시: 매주 수요일 오전 9:30-10:20

장소: 서빙고 콘서트를, 양재 온유홀

문의: 02-3215-3523

양재(02-570-7553)

Acts29비전빌리지 서를 운행

시간: 11:30~12:30

서빙고 출발 9:30, 양재 출발 10:10

비전빌리지(양지) 출발 15:00

마리아행전, 무릎선교기도 연합기도

모임

일시: 매주 목요일 오전 9:45~12:30

장소: 온라인(Zoom)

문의: 여선사역 02-3215-3227

한터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있으신 분들

을 위한 공동체

일시: 매 주일 오전 10:00

장소: 서울 강서구 양천로 504 명문빌딩 7층

문의: 02-3463-9686

대청어머니기도모임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10:00 B102

문의: 홍숙의 권사(010-3003-5910)

남대문희망공동체 예배

쪽방촌 주민, 노숙인과 함께 드리는 예배

매주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용산구 후암로57길 9-3

문의: 010-2496-2319

군선교 기도모임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장소: 서빙고 101호

문의: 군선교팀(02-3215-3214)

*자녀를 군에 보낸 부모님 환영

온누리세라핌합창단 단원 모집

대상: 초1~중1(타캠퍼스, 타교인 지원 가

능)

연습: 매주 토 1~4시(추후 주일 연습 재개)

장소: 서빙고 성가대실(지하 1층)

지휘: 최영은 성가사

문의: 010-8285-6435

두란노서원 채용 공고

업무: 잡지 편집자 1명

형태: 계약직(15개월), 주 5일 근무(주 35시

간)

지역: 서울 서빙고동

기: 7월 7일 금요일까지

접수: 자사 홈페이지

영상·유튜브팀 간사 채용 공고

모집: 영상(촬영, 편집) 0명 / 신입

자격: 세례교인, Premiere Pro, After Effe

ct, Final Cut Pro 등 영상 편집 프로그램

가능자, 책임감이 강하고 성실하며, 성품이

온유한 자, 해외여행 결격 사유가 없는 자

우대: 1정보통 운전면허 소지자, 온누리교

회 대학청년부

문의: 서빙고 영상·유튜브팀(02-3215-

3752, 3787)

게시판 광고마감 목요일 오후 4시*양재** 02.573.9686**토요일예배**

1부 오전 9:00 사랑홀

일요일예배(사랑홀, 드림홀)

1부 오전 6:50 2부 오전 9:00

3부(열린예배) 11:30 4부 오후 1:50

5부(대학청년부 여호수아) 오후 4:00

6부(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00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금 오전 5:20 사랑홀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금 오전 6:30 기쁨홀

새신자를 위한 열린예배

주일 오후 7:00 사랑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사랑홀

수요저녁예배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사랑홀

금요일심야예배

매주 금 오후 10:00 사랑홀

브릿지33+ 예배

33세~49세 싱글 남녀를 위한 공동체

매주 주일 오후 2:30, 하용조 기념홀

한마음 정신 회복 예배 안내

매주 주일 오전 11:30 강의동 304호

Point5 예배

주일 오전 11:30 하용조 기념홀

차세대예배(Point5 영어와 한국

어로 드리는 예배)

Jesus Vine 중등1~고등3(비전홀A 9:00)

도곡교육관 주일 성인예배

도곡1관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30분,

3부 오후 1시 50분

도곡 차세대 9:00 예배

영아부: 교육관 꿈터(B동 1층)

유치부: 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유년부: 교육관 충성홀(B동 2층)

초등부: 교육관 화평홀(B동 2층)

중등부: 교육관 온유홀(A동 2층)

고등부: 교육관 기쁨홀(A동 3층)

도곡 차세대 11:30 예배

예꿈2부: 교육관 꿈터(B동 1층)

꿈팡2부: 교육관 충성홀(B동 2층)

도곡 차세대 14:00 예배

예꿈3부: 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꿈팡3부: 교육관 충성홀(B동 2층)

도곡교육관 주일 10:30 예배(영어)

Adult Service: 도곡2관(중대부고 강당)

도곡교육관 영어 차세대예배

Youth Service 11:00 도곡1교육관 기쁨홀

Kidzone 10:30 도곡2교육관 기쁨홀

도곡교육관 주일 오후 4:00 예배(청년부)

갈렙청년부 도곡1관 기쁨홀

사랑부 예배

주일 오전 9:00(발달장애인 6세~18세),

11:20(발달장애인 대학청년) 비전홀B

문의: 김병철 목사(010-9289-3927)

프랑스어 예배

설교: Gerard Tynevez

일시: 주일 오후 2:00 양재 강의동 304호

문의: 010-8483-6210 *통역 지원

스페인어예배

설교: 김종균 목사

일시: 주일 오후 2:00 도곡교육관 온유홀

문의: 010-4053-2179

하나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 있는 분

들을 위한 공동체

매 주일 14:00 JDS홀

마리아행전 주중기도모임

대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여성

일시: 매주 수요일 13시~14시 30분

장소: 양재 화평홀

문의: 02-570-7277

양재 대청어머니기도모임

국내 온누리교회 • 서빙고 박종길 목사 (02) 793-9686(대표) 0428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347-11 • 양재 강부호 목사 (02) 573-9686(대표) 06752 서울시 서초구 바우포로 31길 70 햇빛선교센터 • 부천 정재욱 목사 (032) 322-9686 14503 부천시 원미구 평천로 589 • 수원 김승훈 목사 (031) 895-6500 17085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2077번길 80 • 대전 김상수 목사 (042) 825-3642-4 35234 대전시 서구 둔산로 64 온누리빌딩 3-6층 • 남양주 이기복 목사 (031) 565-9686-8(대표) 11946 구리시 아문안로 154 진성빌딩 2-5층 • 평택 신동식 목사 (031) 651-9680(대표) 17866 경기도 평택시 신흥1로 22길 61 2층 • 인천 김승수 목사 (032) 437-9686(대표) 21987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교육로 75 • 강릉 이준호 목사 (02) 475-9686 05335 서울시 강릉구 천호대로157길 14 나비빌딩 11, 12층 • 양지	박철웅 목사 (031) 331-8171 17156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주계로62번길 20 • 영종 도육환 목사 (032) 752-7937 22377 인천광역시 중구 운남로 49 • 안산 온누리M센터 노규석 목사 (031) 491-9650 15243 안산시 단원구 신천로 8 ■ 기도처 • 태안온누리 임용성 목사 (070-8627-7676 충남 태안군 태안읍 경이정3길 10 온누리교회 태안온누리 • 서산온누리 임용성 목사 (041) 665-9686 충남 서산시 쌍연남3길 9 서산온누리교회 • 봉화온누리 엄정순 권사 (054) 673-7428 경북 봉화군 명호면 만리산길 613 • 진해골온누리 주수일 장로 (031)-767-2776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진해골길 166 해외 온누리교회 ■ 미서부 • 얼바인 박산웅 목사 1-949-261-9100 17200 Jamboree, Irvine CA 92614 U.S.A. • 로스앤젤레스 이정영 목사 1-213-382-5658 743 South Grand View st.	Los Angeles, CA 90057, USA • 샌디에이고 이민욱 목사 1-619-847-4147 8890 Miramar Rd, Suite 275 San Diego, CA 92126 • 산타모니카 정장철 목사 1-213-235-5791 1420 Yale St, Santa Monica, CA 90404 • 괌 김형철 목사 1-671-734-8522 155 Father Duenas St, Mangilao Guam 96913 ■ 미동부 • 보스턴 김철진 목사 1-781-933-7044 73 pine st, Woburn MA 01801 U.S.A. • 시카고 이중재 목사 1-630-753-9191 1433 NMain St, Naperville IL 60563 • 뉴욕IN2 심상현 목사 1-212-427-2055 401 7th Ave.(18th Floor) New York, NY 10001 • 뉴저지 Marc Choi 목사 1-201-461-4010 1449 Anderson Ave., Fort Lee, NJ 07024 ■ 미북부 • 포틀랜드 이성권 목사 1-503-628-2000 19630 SW Scholls Ferry Rd, Beaverton, OR 97007 USA • 앵커리지	서재범 목사 1-907-569-9191 4801 old seaward HWY Anchorage, AK 98503 • 밴쿠버 박태영 목사 1-604-888-0092 19711 86th Ave. Langley, BC V2Y 1Z5 Canada Worship: Pacific Academy Auditorium 10238 168th Street, Surrey ■ 오세아니아 • 시드니 전현규 목사 61-2-9649-1180 18 Main Ave, Lidcombe NSW 2141 Australia • 오를랜드 유현목 목사 64-21-0810-3132 470 Glenfield Rd, Glenfield Auckland New zealand • 홍콩 송재욱 목사 852-2506-0089 221-227 Austin Tower 22-26 Austin Avenue, Tsim Sha Tsui, KLN, HK ■ 일본 • 동경 후쿠자와 마키토 목사 81-3-5637-3210 (169-0074) 3-39-7 Kitashinjuku , Shinjuku-ku, Tokyo, Japan • 오사카 김철희 목사 81-6-6121-2015 (542-0083) Naniwa 3F 1-3-19 Higasisinsaibasi Chuoku Osakasi Japan • 우에다 하카마타 미키 목사 81-26-821-4566	(386-0032) Nagano-ken Ueda-shi Suwagata 1377-64 JAPAN • 요코하마 니시아마 신이치 목사 81-45-641-6468 (231-0012) Yaomasa Bldg.4F.3-63 Aioi-cho, Naka-ku, Yokohama-shi, Kanagawa-ken, Japan • 아치오 요시하라 마나부 목사 81-47-482-1299 (276-0045) 832-2, Oowada, Yachiyo-shi, Chiba-ken, JAPAN • 나고야 정호석 목사 81-52-938-5011 (454-0974) AICHI-KEN NAGOYA-CI NAKA-GAWA-KU SHIMAI-CHO61 EHWA DAIAMOND 2F • 교토 권영환 목사 81-75-748-9303 (615-0854) Nisikyogoku Tsutsumisotocho 1-4(1F&2F),ukyo-ku, Kyoto-si ■ 중동 • 아부다비 김도균 목사 971-56-385-4238 villa no23 next to Bright Beginning Nursery, 25th street, Al Mushrif Abu Dhabi, UAE ■ 동남아시아 • 베트남 이길탁 목사 84-8-5412-2773 3SL 20-1 Grandveiv C, Phu My Hung Q7, HCMC, Vietnam
---	---	--	---	---

섬기는 분들

◆담임목사

이재훈

국내 온누리교회

◆캠퍼스 담임목사

박종길 강부호 정재욱 김승훈
김상수 이기복 신동식 김승수
이준호 박철웅 도육환

◆부목사(전임)

김미향 강은수 강지영 권오향
김미향 김혜영 김도은 김미정
권용갑 김혜영 김도은 김미정
김진재 김성욱 김성웅 김성겸
김승환 김영배 김요성 김용민
김윤식 김재석 김재승 김정희

◆전도사(파트)

강귀용 강하람 강현구 구길모
관대식 권예람 강가희 김다모데
김동규 김미리 김민수 김반석A
김반석B 김영신 김예찬 김이연

김종민 김종아 김종호 김창호
김태용 김영배 김요성 김현실
김흥주 노규석 노지형 노혜태
럼문홍 문영재 박근배 박성은A
박성은B 박성천 박천중 박형준

배행삼 백성우 백인구 변대섭
서경남 송석근 송영동 송재호
신기섭 신영훈 신원철 스티브차
안사부엘 양성민 양재경 여성민

오 민 오은규 유진아 윤길중
윤리이 윤현규 이강현 이기원
이기훈 이비오 이서진 이세영
이승민 이우람 이윤재 이원진

이재원 이재정 이정철 이찬우
이한규 임용성 장동원 장재원
전병천 전신익 전 진 전재표
정상훈 정성진 정승철 정한호

정현석 정영권 정희성 제치윤
조동욱 조병홍 조바울 조준목
조현수 최대훈 최승규 최성민
최영민 최용준 최재윤 최중현

최혁중 추대식 카와무라 요시키
하성희 하정훈 한화수 한충희
하원희 황종원

◆전도사(전임)

김은혜 김태광 민근홍 신대종
신현민 송동주 송예찬 오현교
유성하 이상욱 이진기 이호준

이형목 장지훈 정연상 조은광
주하늘 진선미

◆목사(준전임)

구혜미 조호영

◆경배와찬양 목회자

하스데반

◆협동목사

김도일 류모세 방성기 이기복
한정국

◆부목사(파트)

가 나 강정모 김래위 김바울
김병철 김용산 김은하 김주영
김진숙 김중영 김태주 김혜경
네트라 뉴이엔 한해원 마주바루

박씨마 백승현 비 켈 서영철
성루애늬 사가르 윌리엄 에릭 마
이름 스톨즈 이강혁 이민영

아이라프 이은일 이은정 이진이
이진희 임혜선 윤치연 최정현
홍광인 최정현

◆전도사(파트)

강귀용 강하람 강현구 구길모
관대식 권예람 강가희 김다모데
김동규 김미리 김민수 김반석A
김반석B 김영신 김예찬 김이연

김종민 김종아 김종호 김창호
김태용 김영배 김요성 김현실
김흥주 노규석 노지형 노혜태
럼문홍 문영재 박근배 박성은A

박성은B 박성천 박천중 박형준
배행삼 백성우 백인구 변대섭
서경남 송석근 송영동 송재호
신기섭 신영훈 신원철 스티브차

안사부엘 양성민 양재경 여성민
오 민 오은규 유진아 윤길중
윤리이 윤현규 이강현 이기원
이기훈 이비오 이서진 이세영

이승민 이우람 이윤재 이원진
이재원 이재정 이정철 이찬우
이한규 임용성 장동원 장재원
전병천 전신익 전 진 전재표

정상훈 정성진 정승철 정한호
정현석 정영권 정희성 제치윤
조동욱 조병홍 조바울 조준목
조현수 최대훈 최승규 최성민

최영민 최용준 최재윤 최중현
최혁중 추대식 카와무라 요시키
하성희 하정훈 한화수 한충희
하원희 황종원

◆사역장로

김은혜 김태광 민근홍 신대종
신현민 송동주 송예찬 오현교
유성하 이상욱 이진기 이호준

이형목 장지훈 정연상 조은광
주하늘 진선미

◆목사(준전임)

구혜미 조호영

◆경배와찬양 목회자

하스데반

김광동

김남열 김병중 김명철 김성택
김성순 김상인 김승광 김수역
김승웅 김승철 김영수 김 완

김원규 김원중 김윤식 김의득
김이곤 김인화 김장렬 김재욱
김종건 김중성 김중순 김주흥

김진국 김현철 김형식 나상권
김하준 김희영 류지영 문성기
문창호 문중실 문현구 박 공

박성봉 박성근 박성진 박성호
박성훈 박성환 박정민 박정우
박태성 배 문 백남인 백승웅

백호현 백흥기 박성진 박성호
서진봉 서찬교 성장섭 순한기
송만석 송영범 송영태 송유신

송일섭 송재길 송창도 신만인
신영각 신우권 신현중 심상달
김태기 김준원 김현철 김형준

김형중 김하선 김하수 김요구
김희준 나광욱 나 영 나영욱
남정진 남주연 명영찬 문상찬

박대호 박대현 박대원 박대원
박명규 박명철 박성규 박순길
박승우 박영국 박영태 박영환

박우형 박일구 박일면 박일환
박재두 박중현 박지수 박지환
박해한 박현규 박형민 박홍관

박흥선 방찬종 배기영 배승호
배중신 백중욱 서달식 서명수
서명화 서선영 서광제 서준명

손기철 손정래 손태웅 송동섭
송종환 송호철 신동기 신우철
신민호 신 설 신철우 신하철

신현숙 심길섭 심효무 심희돈
안동혁 안상현 안상식 양 용
양준환 양준경 양종식 오 명

오승규 오성훈 오성훈 오승탁
유선애 유은희 윤지현 이미선
이민호 이명근 이수정 이성민

이성민 이은택 이우영 이우영
전병곤 전지영 정성미 채미현
전경아 최영은 최윤석 최지훈

최진아 최재영 최재경 최훈희
홍용식

홍정표

황영욱 황용오 황의서
황재광

■ **사무장로**

강경국 강동수 강부순 강상훈
강신익 강은철 강창재 강태욱
이해남 이태원 이흥선 이학일

임보영 임보영 임보영 임보영
임현태 임희철 임희철 임희철
장경식 장광열 장규환 장문성

장선철 장정열 장영기 장영환
장정호 장정호 장정호 장정호
정영기 정영주 정영택 정영환

정운섭 정운오 정원만 정영환
정원만 정원만 정원만 정원만
제무성 조대식 조대희 조병현

조성수 조성현 조성현 조성현
조성수 조성현 조성현 조성현
최보림 최상근 최석민 최성완

최용재 최주관 최환우 최환희
최환희 최환희 최환희 최환희
한상규 한왕석 한창경 한충희

한필규 함일섭 함정철 허 경
허광수 허복만 허영남 허영환
허필우 홍갑진 홍성호 홍의택

홍충선 홍혜남 황병원 황상윤
황성룡 황유일

◆명예장로

김종수 박동순 박찬구 이승규
이용민 이원로 이혁상 장옥룡
정광택 정병주 정상근 지성환

◆협동장로

강승모 김갑선 김정훈 김 준
남영태 류수광 해드라스 박지인
박현규 양호승 우상근 이정희

정지석 주치수 최대화 최원호
최준용 추교명 합지연 황재익

◆성가사

강내우 강순영 강중현 강혜영
김기덕 김건주 김병우 김병오
김선아 김세일 김은혜 김경겸

김정환 김지영 김혜경 김형준
김희정 남윤창 문보람 박은혜
박용규 박정규 손창우 송정희

신준환 오승현 오지훈 오지훈
유선애 유은희 윤지현 이미선
이민호 이명근 이수정 이성민

이성민 이은택 이우영 이우영
전병곤 전지영 정성미 채미현
전경아 최영은 최윤석 최지훈

◆성가사

강내우 강순영 강중현 강혜영
김기덕 김건주 김병우 김병오
김선아 김세일 김은혜 김경겸

김정환 김지영 김혜경 김형준
김희정 남윤창 문보람 박은혜
박용규 박정규 손창우 송정희

신준환 오승현 오지훈 오지훈
유선애 유은희 윤지현 이미선
이민호 이명근 이수정 이성민

이성민 이은택 이우영 이우영
전병곤 전지영 정성미 채미현
전경아 최영은 최윤석 최지훈

◆성가사

강내우 강순영 강중현 강혜영
김기덕 김건주 김병우 김병오
김선아 김세일 김은혜 김경겸

김정환 김지영 김혜경 김형준
김희정 남윤창 문보람 박은혜
박용규 박정규 손창우 송정희

신준환 오승현 오지훈 오지훈
유선애 유은희 윤지현 이미선
이민호 이명근 이수정 이성민

이성민 이은택 이우영 이우영
전병곤 전지영 정성미 채미현
전경아 최영은 최윤석 최지훈

◆성가사

강내우 강순영 강중현 강혜영
김기덕 김건주 김병우 김병오
김선아 김세일 김은혜 김경겸

김정환 김지영 김혜경 김형준
김희정 남윤창 문보람 박은혜
박용규 박정규 손창우 송정희

신준환 오승현 오지훈 오지훈
유선애 유은희 윤지현 이미선
이민호 이명근 이수정 이성민

◆성가사

강내우 강순영 강중현 강혜영
김기덕 김건주 김병우 김병오
김선아 김세일 김은혜 김경겸

이영복

이인용 이재광 이재준 이영규
이정근 이종길 이종우 이종철
이진택 이태원 이흥선 이학일

임보영 임보영 임보영 임보영
임현태 임희철 임희철 임희철
장경식 장광열 장규환 장문성

장선철 장정열 장영기 장영환
장정호 장정호 장정호 장정호
정영기 정영주 정영택 정영환

정운섭 정운오 정원만 정영환
정원만 정원만 정원만 정원만
제무성 조대식 조대희 조병현

조성수 조성현 조성현 조성현
조성수 조성현 조성현 조성현
최보림 최상근 최석민 최성완

최용재 최주관 최환우 최환희
최환희 최환희 최환희 최환희
한상규 한왕석 한창경 한충희

한필규 함일섭 함정철 허 경
허광수 허복만 허영남 허영환
허필우 홍갑진 홍성호 홍의택

홍충선 홍혜남 황병원 황상윤
황성룡 황유일

◆명예장로

김종수 박동순 박찬구 이승규
이용민 이원로 이혁상 장옥룡
정광택 정병주 정상근 지성환

◆협동장로

강승모 김갑선 김정훈 김 준
남영태 류수광 해드라스 박지인
박현규 양호승 우상근 이정희

◆성가사

강내우 강순영 강중현 강혜영
김기덕 김건주 김병우 김병오
김선아 김세일 김은혜 김경겸

김정환 김지영 김혜경 김형준
김희정 남윤창 문보람 박은혜
박용규 박정규 손창우 송정희

신준환 오승현 오지훈 오지훈
유선애 유은희 윤지현 이미선
이민호 이명근 이수정 이성민

이성민 이은택 이우영 이우영
전병곤 전지영 정성미 채미현
전경아 최영은 최윤석 최지훈

◆성가사

강내우 강순영 강중현 강혜영
김기덕 김건주 김병우 김병오
김선아 김세일 김은혜 김경겸

김정환 김지영 김혜경 김형준
김희정 남윤창 문보람 박은혜
박용규 박정규 손창우 송정희

신준환 오승현 오지훈 오지훈
유선애 유은희 윤지현 이미선
이민호 이명근 이수정 이성민

◆성가사

강내우 강순영 강중현 강혜영
김기덕 김건주 김병우 김병오
김선아 김세일 김은혜 김경겸

김정환 김지영 김혜경 김형준
김희정 남윤창 문보람 박은혜
박용규 박정규 손창우 송정희

◆성가사

강내우 강순영 강중현 강혜영
김기덕 김건주 김병우 김병오
김선아 김세일 김은혜 김경겸

김정환 김지영 김혜경 김형준
김희정 남윤창 문보람 박은혜
박용규 박정규 손창우 송정희

◆성가사

강내우 강순영 강중현 강혜영
김기덕 김건주 김병우 김병오
김선아 김세일 김은혜 김경겸

김정환 김지영 김혜경 김형준
김희정 남윤창 문보람 박은혜
박용규 박정규 손창우 송정희

◆성가사

강내우 강순영 강중현 강혜영
김기덕 김건주 김병우 김병오
김선아 김세일 김은혜 김경겸

김정환 김지영 김혜경 김형준
김희정 남윤창 문보람 박은혜
박용규 박정규 손창우 송정희

◆성가사

강내우 강순영 강중현 강혜영
김기덕 김건주 김병우 김병오
김선아 김세일 김은혜 김경겸

우리 몸으로, 풍당!



소화기관 어드벤처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배우는 인체탐험 키즈 애니메이션
쌍둥이 남매 찬이, 송이와 함께 '우리 몸으로, 풍당!'



풍당에서 만나요!



<우리 몸으로, 풍당!> 혈관 어드벤처 동화책은
두란노서점(서빙고, 양재, 송도점)에서 판매합니다.

도서판매수익금 전액은 풍당 키즈 콘텐츠 제작에 쓰입니다
문의: 풍당 고객센터 02.792.0691